朝鮮日報
夕刊
十一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 排日行爲根絶期코
# 川越大使에再訓
## 拔本塞源的인根本對策으로
## 排日要人下野勸告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에 對應된 北海事件의 勃發은 全中居留日本人의 身邊및日本의 旣得權益을 全然危殆히 瀕케하는것이라하야 日本政府는 重大決意로서 臨할必要가잇다고하야有田外相은 數日來의 病이漸次快方에 向하엿슴으로 十一日定例閣議에 出席하야 北海事件의經過를 詳細報告하는同時에 去九日陸海外三省局協議 結果三省一致로 決定된對中强硬對策을披瀝하고北海事件은 成都事件과 全然動을달리한것으로 그取扱에 잇서어데까지 國民政府의 責任을追求하는 根本方針을 說明하야各閣僚의 諒解를 求得키로되엿다 그리고 閣議終了後繼續하야 三相會議를 開催하고 다시對中對策遂行의 完璧을 期코저 三省間에 緊密한 連絡을取하고 또過般閣議에서 決定하야 川越大使에게 訓電한 政府의 根本方針을 北海事件에도 適用하야日本側要求를 國民政府가 責任지고 實現케하야 어데까지 拔本塞源的排日侮日行爲의 根絶을期코저 同樣의 回訓을行할터이다

【東京電話同盟】成都、北海兩排日事件에 對한 根本的對策으로 國民政府로하여금 排日根絶의具體的措置를 取케하기爲함에 當하야 去數十年의 經驗으로에미루어보면 中國政府의 排日取締公約은 單純히 口頭뿐으로 그때문에 排日運動은 益益猖獗되는 感이잇슴으로 有田外相은此際 一擧에 策動의 根源을 衝하야 徹底的是正을 期할目的으로 蔣介石氏에게 反日要人의下野를 勸告하기爲하야 川越大使에게 訓電을發하엿다 卽 排日運動은 國民政府 地方官憲 國民黨部및는 國民黨系要人이陰으로陽으로 指導援助하야 學校오는訓練機關을 通하야 反日運動을敢하고 全面的으로 日中關係를 惡化케하는 事實로보아 日本政府로서는 國民政府가 日中提携의必要를 認識한다면 自發的으로 이러한 措置를取할것이라고期待한다 그리고目下 排日要人으로指目되는 人物은 馮玉祥系各派 陳立夫 陳果夫系國民黨要人 蘇聯歐米系要人 黃埔軍官學校系要人等이다

# 敦、隣兩令의發動을
# 須磨總領事要求
## 北海事件에關하야張群氏에게

【南京十日發同盟】須磨南京總領事는 十日午後四時 外交部에서 張群外交部長과 會見하고 二時間半에亘하야 北海事件에 關해 意見을 交換하엿다 席上에서須磨總領事로부터 日本側의 調査員을 軍艦으로 現地에 派遣하엿는데 昨日陳介次長이 말한바와 가리保護를 加하야 調査에 遺漏업도록便宜를 供與하기바란다고다시張部長에 申請하엿다 이에對하야 張部長은 昨日申請한것은 이미現地當局에 詳細打電하엿스나 다시注意를促하겟다고答하엿다 다음에須磨總領事는 成都事件에뒤미처 北海事件이 發生된것은 全然 言語道斷으로 今後 同樣의事件이 續發하면 日中國交上에重大事態를 誘致할것임으로 일죽發布한敦睦、睦隣兩令에基하야 事實上 南國國交를 妨害하는者를 根絶시킬處置를至急取하기바란다고 要求한데對하야 張部長도此를 諒承하고 適當히措處하기를約諾하엿다

### 責任은不回避
### ◇…陳外交次長談

【南京十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次長陳介氏는 十日記者와의會見에서 左와如히 말하야 北海事件에對한 責任을回避치안는다고 斷言하엿다

北海事件은 刁作謙特派員等으로부터 簡單한 報告가 잇섯슬뿐으로 眞相은不明하나 中國側에서도 軍艦으로調査員을 派遣하기로되엿다 現地는 目下廣西軍과 妥協이成立된지 日이여틀으로 充分、中央의威令이 밋지못하는바 如斯한不祥事를 惹起한것은 實로 辯明할 餘地가 업다 勿論中央의 威令이 不充分하다는것을 實로 中央政府로서의 責任을回避를 생각은 조금도 업다 蔣介石氏도 廣東에서 充分手配를하고 잇스나 政府에서도 如斯한事件의 再發을 防止키爲하야 各地方當局에 嚴命하야 外人保護에 萬全을 期하도록 手配하엿다 日中國交調整은 多年日本側이 가장希望하는바로 川越大使의 來京을 待하야 正式外交交涉開始에當하여는 日本側도 胸襟을打開하야 日、中國交打開의 根本問題를 解決할 用意가잇다는것을 此際에 特히 强調하기바란다

### 中國側公文到着
### 一片의誠意도업다

【廣東十一日發同盟】北海事件에 關한 中國側最初의公文은 十日午後四時 當地日本總領事館에 到着하엿다 其內容은 兩廣外交特派員刁作謙氏의 報告를反復한것인데 日本側이어데까지 中國側의排日反對를排擊하고 現地北海로 軍艦을 派遣하려면 如何한 不祥事를 發生할는지 豫測할수업는바 그러케되면本交涉員及 國民政府는 一切其責任을負치안는다고 放言하야 事件解決에 一片의誠意가업는것을 完全히 暴露하엿다 그리고 吉竹總領事代理는 本省의訓令에基하야 十日夜 省政府主席黃慕松氏와會見하고 事件解決에關한 重要折衝을 하엿다

# 參與官制度는不廢止
## 社會事業은緊急事부터
### ◇…大野政務總監談

大野政務總監은 十一日午前十一時半 總督府記者團과 會見하고 左와如히 施政方針에 關하야말하엿다

參與官은 方今各局과 財務局間에 折衝中인데 第二日中에 余의手中에 돌아올것인바 知事會議終了後 林財務局長이 豫算案을 携帶하고 渡東할터이다 그리고 余의 渡東은 十月末 又는十一月初旬頃이 될터이다

豫算編成은 四圍情勢를 考慮할 方針이다 產業經濟調査會에서 決定한事項은 來明年度以後에 豫算化할터이며 社會事業에 關하야는 爲先 罹災救濟資金 設立制度 行旅病者取扱規定 兒童保護等 基本的 制度確立이 緊急問題임으로 今後 漸次 이것의 實現을 圖할터이다 人事異動은 必要가 잇스면하고 又辭職願을 내이는 사람이잇스면 後任을決定할方針이다

參與官制度는 廢止치 안코 作定으로 도리여 自由로운立場에서 活動하게하는 現制度가 조흘듯하다

### 知事會議後의
### 諸會同日程

南總督最初의 各道知事會議는 來十月二十四、五兩日에 亘하야 招集하고 新施政方針을 開示하리라고 期待되는데 同會議에繼續하야 열릴 諸會議는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司法官會議 十月五日、六日、七日
▲中樞院會議 十月九日、十日
▲刑務所長會議 十月二十六日、二十七日

# 陸軍兵工廠職工의
# 勞働組合加入을禁斷!
## 이미加入한者에게는脫退를慫慂
## 橫的連絡斷絶方針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二、二六事件以來 部內에잇서 橫斷的結成이 招致하는 弊害를 痛感하고 其肅軍工作에 邁進하야 人事刷新을 圖하는同時에 其統一工作을 實施하야 皇軍의 威武高揚에 努力하여왓는데 이를 徹底케하는 見地에서 各地造兵工廠職工에、依하야 結成된官業勞働組合中 大阪、名古屋、小倉等과如히 日本勞働組合會議에加入한者에對하야 其脫退를 慫慂하야 橫的連絡을斷切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

卽陸軍에서는 二、二六事件直後 寺內陸相이行한 部內의 橫斷的連絡을 禁止하는旨의 訓示를敷衍하고 陸軍이 渾然一體가되어 活動할수잇는 體制를 整備하려하는것으로 其主旨에 基하야大阪、名古屋、小倉各工廠長은 十日所屬組合幹部와 會見하고軍의 方針을 說明하야 職工에依하야 結成된 勞働團體가 總同盟에加入하거나 或은 勞働會議에 代表者를 보냄은 軍의本旨에 背馳되는것이라고、觀測됨으로 自發的으로 脫退하야 海軍、鐵道側에서 結成한바와如한 勞働組合과는 別個로 橫的連絡을 斷한 組合을 結成하여달라고 懇請하고 日本勞働組合會議로부터 脫退를 慫慂하엿다 右結果 各組合幹部는 各組合員에 對하야 工廠長의 意向을 傳하고 其對策을 協議하기로 되엿다 陸軍의 右와如한 徹底的措置에 對하야 多少의 紛糾가 잇다하드라도 各組合員이 모도 結局總同盟과의 關係를 斷切하게될터로 陸軍從業員의 勞働組合及勞働團體加入은 不可能하게 되엿다 右에對하야 寒澤陸軍新聞班長은 如左히 말하엿다

陸軍에서는 二·二六事件直後 陸相으로부터 部內의 橫斷的連絡을 取締한다는 訓示가잇섯스므로 從來 造兵工廠所屬官業勞働者의 勞働團體加入을 禁止하고 代表를 내이지안코脫退케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 이미 大阪、名古屋、小倉等工廠으로부터 各組合幹部에 對하야 其趣旨를 說明한것이라고 思料된다

그리고 大阪工廠에서는 十日午前九時 中山工廠長으로부터 이뜻을 傳達하엿다 그리고 現在 大阪工廠에잇서 各工場從業員은 川村保太郎氏가 指導하는 官業勞働組合에 加入하야 過般 總同盟으로 消滅되엿든勢力을 挽回하기爲하야 畫策中이든바 當局의 이 斷乎한 通告를 接한 同組合本部는 非常히 狼狽하야 同夜 深更까지 對策協議를 遂한結果 十一日 急遽 執行委員會를 招集하고 態度를 決定하고 代表가 名古屋에 急行하야 西浦委員長과 協議를 遂하고 來十九日 社會大衆黨大會에서 正式으로 態度를 決定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이通告를 接한 工廠內의 從業員間에는 何等動搖도보히지안코 右通告를 그대로 承認한 模樣이라고 工廠當局에서는 자못 樂觀하고잇다

### 組合脫退慫慂은
### 陸軍主張과矛盾
### ◇社會黨의見解

【東京電話同盟】陸軍當局이官業勞働組合에 對하야 組合會議脫退를 慫慂한問題에 對하야 社大黨은 左와如한 見解를가지고잇다

大阪、名古屋、小倉의 官業勞働組合으로부터 아즉詳細한 報告를 接치못하엿스나 確報를 엇는대로 緊急常任委員會를開催하고 右에對한 對策을協議할터이다 問題는 勞働組合全般에 對하야 자못 重大한問題이다 그리고 陸軍이主張하는 國民生活安定과는 全然矛盾背馳되며 甚하다 社大黨은 이軍當局의 矛盾된 理論을排擊하야 猛省을促하려한다

### 日本人택시擴張
### 比島大審院서否認

【마닐라十日發同盟】比島大審院은 十日午後 다바오在住日本人石井源吉氏上告에關한 택시營業事務擴張權認定要求訴訟을 全判事一致로 棄却하엿다 本件은다바오市에서 自動車一臺를 所有하고 택시營業을營業하는 石井氏는 自動車數臺를 增加하야 營業을擴張할目的으로 地方公共事業局에 其許可를 申請하엿든바 不許可되여 大審院에 上告하엿든것이다 그리고 上告棄却의理由는如左하다

一、石井은 比島市民이 아니고 또同人이 營業하는 택시業은 比島憲法에 規定한 資本의六割以上 比島市民의 所有인商事會社가 아니다

石井이自動車一臺로서 택시營業을 許可한것은 憲法制定以前으로 新憲法下에서는 旣得權으로 承認된데不過하다

### 大野總監歡迎晚餐會

朝鮮實業俱樂部의 主催로 來九月十六日 午後六時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大野政務總監來任歡迎晚餐會를 開催하고 同時에陪賓으로三橋警務局長、山田遞信局長、相川外事課長、鹽原、天谷兩秘書官을 招待키로되엿다

# 青島에碇泊中의
# 各艦急遽南下
## 北海에直行、警備擔當

【青島十一日發同盟】南中方面의 事態重大化에 鑑하야 當地碇泊中인 球磨及 第五潛水戰隊、第十六驅逐隊扶桑、刈萱、朝顔의各驅逐艦은 十日午後六時出帆 南下하엿다 그리고 同艦等은 上海에 寄港치안코 그대로 南下하야 北海를 中心으로 南中一帶의 警備에 當키로되엿다

### 上海中國紙論調

【上海十日發同盟】十日當地時事新報는 「北海事件을 論함」이란 題目下에 左와如한 社說을 揭載하야 成都事件以上으로 偶發的地方事件이라고 事實을 歪曲한 暴言을 羅列하야

成都事件이 아직 解決되지못한 이때에 北海事件이 勃發하엿다 事件勃發로 日本은「若竹」「早苗」兩艦을 倉惶히 南下식히다고해서 事態의 重大性을 察知하기難하고 無責任한 論調로써政治的貿易의資本이되게할時는 國家를 窮地에 陷케할뿐이다 그러나 吾人은 此際 日本朝野에 告하다 今次의 北海事件은 中央의政治軍事能力이 到底히 不及하는特殊地域에서發生한것으로 成都事件과는 判異한偶發性의 地方事件이다 그럼故로 日本側은 이理智에依하야 問題의是正으로서 其是非善惡하고 其行動을 抑壓할것이다

# 볼쉬비즘攻擊에
# 蘇新聞猛然警告
## 히總統의演說을論難

【莫斯科十日發同盟】나치스黨大會에서 行한 히틀러 總統의볼쉬비즘攻擊에 對하야 蘇聯政府는 十日夜 紙面의 警告를獨逸政府에 與하고 左의意向을表明하엿다

히틀러 總統은 뉘른베르히黨大會에서 再次 歐洲를擾亂케할 新手段을 準備하고잇슴으로 볼쉬비키攻擊은 獨蘇兩國間의外交關係上 반드시 中止하기를 바란다

但蘇聯政府는 아즉 伯林駐箚大使撤回는 考慮치안코나言論界는 크레무린當局의 意向을 反映하야 十日夜 一齊히 나치스論難의 氣勢를 베푸럿는데 特히共產黨機關紙프라우다紙는 左와如히 나치스의 『飢餓經濟政策』을 攻擊하고잇다

히틀러總統의 所謂平和的提案은 要컨대 軍備擴張의約束에 不外하다

히틀러總統은 또나치스天國을 約束하나 新經濟政策下에 잇서서는 食糧은不足할것이다 要컨대 飢餓와 食糧不足을約束함에不過하다 結局國民은 부인주머니에空手形을 쥐는것이다 國庫는 窮乏을、告하고金準備는 減少하야 食糧을 買入할 現金은軍費에 充當하고잇다

外交政策에 對하야도 植民地要求以外에는 거이 言及치 안핫다 結局 볼쉬비키反對 煽動的言辭를 除去하면 殘餘가 果然무엇인가 히틀러總統은 獨逸國民에對하야 飢餓와 殘忍한 戰爭과를約束한데不過하다

### 人事·集會

▲崔在裕氏(世醫專講師)其間京都帝大醫學部眼科에서研究하다가 日前에歸校

### 八面鋒

「民主主義思想은 獨逸國民의大敵」이라고 히틀러總統이 演說。

◇民生은 思想보다도 生活을要求한다、生活安定이아니면 아모主義도 쓸데업는主義。

◇過去의旣定治水計畫은 一旦擲棄하고 根本的新計畫을세우기爲하야 綜合的再檢討를하리라고。

◇舊가 푹 잘못이라는것이아니라 不完全 不徹底한것만은事實、새로히 計畫을 세운다면 水禍에서 永久히 免케하랴。

◇成都事件、北海事件으로 外陸海三省의根本方針確立。

◇이때에 英國이 重大關心을 갓는다하니、世界의耳目은 다시 東亞로모히는가。

# 牧野侍從、十一日
# 南朝鮮地方向發

東海北部線沿線의 水害狀況視察을終了한 牧野侍從은 十一日午前七時二十分着列車로 入京하야 一旦朝鮮호텔에서 少憩한後 同十時五十分發 列車로 大野政務總監以下 總督府高官多數의 餞送裡에 鳥致院으로南下하엿다 同侍從은 鈴川林政課長의 案內로南朝鮮各地의 水害狀況을 視察하고 來二十日午前十一時 釜山發連絡船으로 歸東할터이다

# 白頭山探險記

# 白頭中麓神武城
## 벽돌덤이의由來
㉑ 徐椿

身體의 虛弱은 百病의 根源이다。長途難路의 强行軍은 身體의 疲勞를 招致하고、疲勞는 身體의 虛弱을 誘致한다。그런 탓인가 露營第二夜의 神武城에서도 이런病 저런病으로 洋醫村을 차저 가는 사람에、漢醫村을 차저가는 사람에 한참 奔忙한 光景이 보이엇다。多幸이다。輕症이라、저옥이 安心이되나、그래도 萬一을 몰라서 憂慮거리가 되엿다。

밤을 當해 보니 치운 程度는 昨夜茂峰에서 보다。좀 떠하다。白頭山은 山麓으로부터 올라올사록 또는 드러올사록 氣溫이 나저 간다는 感이가고 생각햇다。

이날 露營地神武城은 바로 北側으로 江을 끼고 안젓스나 地勢가 若干 놉흔 탓인가 濕氣도 亦是 茂峰보다는 적어서 잠자리가 比較的便利하리라는 늣김을 가지게 되엿다。

十一日、午後十時頃 亦是、前夜와 마찬가지로 同行中 자지 안는 사람의 떠드는 소리를 드르면서、山中을 擾亂化하는 말(馬)의 울음소리를 드르면서 잠이 들엇다。

말의 울음소리에 놀래여선가? 문득 잠이 깨여 時計를 꺼내여 보니 때는 午前두時다。十二日午前두時다。잠들엇든지 네時間만에 깨여 낫다。마치 오줌이 매렵드라니 旣往 깨바이니 오줌이나 누자는 생각으로 天幕布門에 잡아 매여 노흔 노끈을 끄르고서 밧갓으로 나갓다。다리(脚)가 어떠케 압흐든지 文字그대로 寸步를 옮겨노흘수가 업다。每一步를 옮겨 놋는 苦痛이 죽는 苦痛以上이면 以上이지 以下는 아니다。어떠케 압흔지 한다리를 옮겨 노흘 생각만해도 섬찌 안흔 눈물이 쏠쏙 쏘다질 地境이다。이때 나의 悲觀은 極度에 達햇다。인제 三四時間이면 날이 샐것이다。四五時間以內에 强行軍은 開始된다。드르니 來日길은 여러것 모양으로 平平坦坦한 길이 아니요、峰巒과 溝壑이 交互해 잇서 훨신 險하다고들 한다。『그러타면 나는 來日부터는 探險途中의 落伍者라는 烙印을 부치고 말(馬)께 실리워 갈수바께 업지 아니 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러러 하늘에 뜬 별을 보며、左右로 컴컴히 둘러선 森林을 바라보니 天地自然이 모다 나를 비웃는듯 同情하는듯하야 그제는 서러운 눈물이 두 뺨을 흐르기 始作하면서 『나는 故鄕을 다시 가 볼수가 잇슬까?』 하는 極端의 생각까지 하게되엿다。이것은 悲感끄테 오는 絶望狀態다。

모진 잠은 그래도 온다。이에 생각을 돌려 잡아 「예수의 말슴도 잇지 아니하냐? 비록三四時間後人일지라도 잇다가 할 일에 對해서는 그때에 가서 근심해도 足하다。爲先은 잠을 자자。』하는말로 自慰의 거리를 삼고、如前히 압흔 다리를 끌면서 天幕안으로 드러와 다시 잠이 드럿다。

騷亂한 소리에 깨여 나서 時計를 보니 午前五時다。다시 잠이 든지 세時間만이다。十二日午前五時다。일어나는 그 瞬間으로 나는 얼핏 느려서서 먼저 걸어 보앗다。다리가 거뿐한 것이 疲勞가 恢復되엿다는 程度에 그친것이 아니라、도리혀 서울서 떠날때보다 더 輕快하다。第一步에 疑心하고、第二步에 疑心햇스나 거름을 걸어 갈사록 事實로 輕快한것을 알게 되엿다。

『하느님의 造化라고할까? 人體의 環境에 對한 順應性이라고할까? 實로 妙를 極한것이라고밧게 다시 表할 말이업다』

나는 이날以後부터는 白頭山絶頂을 다녀서 出口胞胎里까지 나가는 四日間을 두고 다리앏호다는 感覺을 가저 본적이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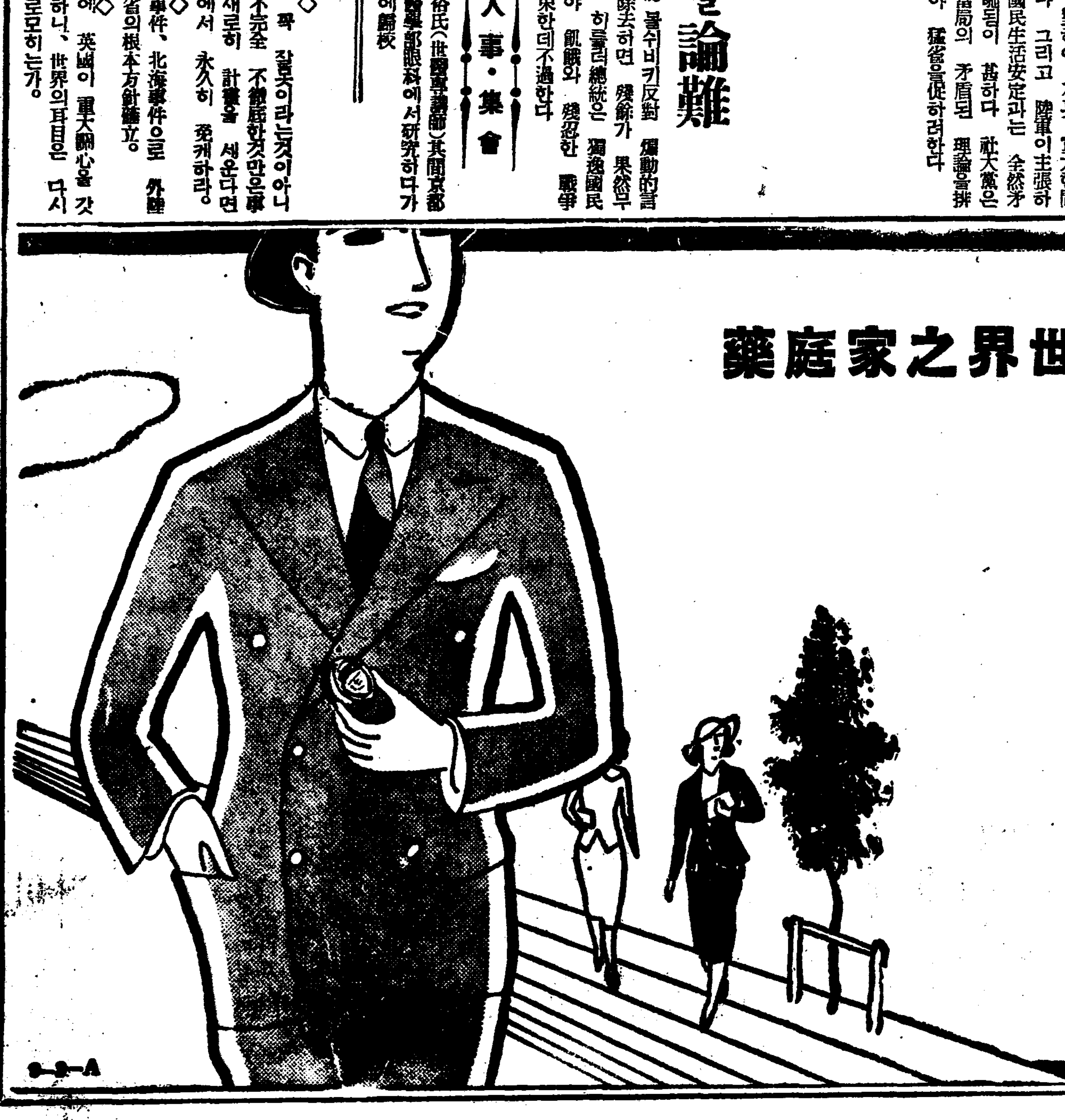
十二日、아침六時半頃、一行은 朝飯을 마치고 第三日의 行軍目的地인 無頭峰을 向하야 神武城을 出發햇다。

約三里쯤 갓을때 큰 溝壑이 잇고、그溝壑의 東南岸에 落葉松十株쯤 드러서리만치 瞬地가 생기고、거기는 벽돌(煉瓦)數十張을 싸아 노흔 뎀이가 잇다。그우에는 개와(瓦)도 몃장노히어 잇고、또 그맨 우에는 模型집처럼만드러 神位를 모신것도잇다。언제 이런것이 생기엇스며、누가 이런것을 만드럿는냐? 하는데 對해서는 나는 도모지 모른다。다만 昭和五年에 白頭山에 갓든 民世安在鴻氏의 白頭山登陟記(第四○頁)에 依하면

『우에는 고스란한 기와장을 포개 노앗스니 그製作이 마치 中國風인데 約五十年前의 遺物이라한다。그 來歷은 자못 區區하니 (一) 帝政當國의 末 東總略이 한참 바빨적에 이고장에 으슥한 根據地를 잡으랴고 製作하엿다는說 (二) 紅土水의 發源인 圓池에 中國人富豪의 芳年의 딸이 抱寃하고 빠저 죽엇스므로 그 祠堂을 지어 冥福을 빌고저 하든것이라는說、(三)例의 吳祿廷이 淸室을 爲하야 忠動할때 여기다가 따로 一縣을 開創하려고 하엿다는說、(四) 아近方에 話題를 남겨 둔 明川胎生의 韓邊外가 白頭山東北에서 數代基業을 開創하고 그孫子韓登擧和가 이곳에 理想鄕을 建設하려든 遺物이라는 說의 네가지가 잇다。』

라고 잇고、또한 昭和 二年에 白頭山에 갓든 六堂崔南善氏의 白頭山覲參記에 보아도 이비슷한말이 잇스나 나는 그由來를 도모지 모른다。(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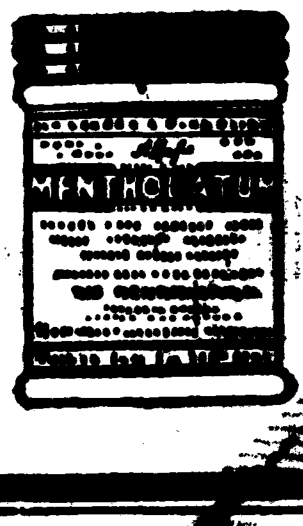
(寫眞은 神武城의 벽돌덤이)

世界之家庭藥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레-탐

시원한바람에
마음까지맑어지는
가을살결도
멘소레-탐으로
健康하여집니다




特效
거츤살결
벗꺼름
外傷
蚤蚊
蜂虫
구두에낫데
頭痛
齒痛
神經痛
痔疾
化粧下
面刀後

價
二十五錢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 同胞救護의烽火! 異鄕各地서炎炎

## 東京、大阪、神戶、京都等八個都市의 在留兄弟로부터誠金遝至

삼남지방을 비롯하야 강원도일대의 풍수해의상황이 나날히자세히보도됨사록 그상황이 더욱더욱 처참하여짐에딸아 사회의동정도 그만큼 더발로되야조선안에서는물론 고향을떠나 멀리일본내지각처에 가서사는 동포로부터도 수해지로 보내달라는 성금을 다음과가리 속속본사에 긔탁하여오는중이다

▲五圓六十錢 兵庫縣神戶市東泥町協和고무工業所內朝鮮人一同 ▲十七圓六十錢과 衣類六十點 兵庫縣武庫郡大庄村道意新田朝鮮人一同 ▲四圓二十錢 神戶市立商井夜學校 朝鮮人生徒一同▲十二圓 尼崎市西本町朝鮮料理組合▲五圓 福井縣吉田郡松岡町李俊達▲十七圓九十錢 東京市蒲合區丹後町朝鮮人協和會一同▲十二圓三十錢 東京小石川區白山御殿町玄善泰外苦學生一同▲五圓四十錢 神戶灘區岩屋南町苗村商店內朝鮮人一同▲十五圓九十五錢 兵庫縣武庫郡大庄村濱田朝鮮人一同▲十五圓七十錢 大阪泉北郡五荘村朝鮮人一同▲二十圓四十一錢 大阪淀川區長柄濟通西四丁目朝鮮人一同▲十圓 京都下京區吉祥院菅原町朝鮮人一同▲二十一圓五十七錢堺市七道本町一四八朝鮮人一同▲三十九圓二錢大阪市港區高尾町一、二丁目朝鮮人一同

# 災地에보내는 異國人의溫情

## 開城在留하는中國商人들 自進하야水害義捐金

【開城】국경을초월한 인정미담두편!! 부내궁정(宮町)이일일번지사는중국인 유영상(劉永祥)씨와 북본정(北本町)음식점 영업을하는덕창태(德昌泰) 사광근(史廣勤)씨는 이번수재에 가난한우리겨레가 아조사지에빠저 그비통함이 절정에달하얏다는 본보신문기사를보고 인정상참아 그냥잇슬수업서 약소하나마 동정금을의탁하라왓노라하며 지난십일본보개성지국을 친히차저와 전기사씨는 십원을 유씨는오원을각각의연하고 도라갓는바 실로그들은 민족을초월하야 인생의술픔을생각하는정신엔 우리는감격하지안을수업다

## 第二次風水害報告集計【九月十日正午現在警務局】

| 道名 | 人命의被害 死者 | 負傷者 | 行方不明 | 家屋의被害 倒潰 | 流失 | 浸水 | 船舶의被害 流失 | 沈沒 | 備考 |
|---|---|---|---|---|---|---|---|---|---|
| 京畿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九月九日午後五時 |
| 忠淸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七日午後五時 |
| 忠淸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一日午後十一時 |
| 全羅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六日午後三時 |
| 全羅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五日正午 |
| 慶尙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三日午後七時 |
| 慶尙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五日午後六時 |
| 黃海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四日午後八時 |
| 平安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上 |
| 平安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七日午後三時 |
| 江原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一日午後十時 |
| 咸鏡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同上 |
| 咸鏡北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小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第一次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累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備考】京畿道內에 死者가 만히 增加한것은 九月五日 仁川近海에서 暴風에依하야 漁船遭難事故等으로 死傷者를 내인것이다。

하얏다한다

## 結婚詐欺

십일시내 종로서사법계에 아산(牙山)출생의 강윤룡(姜潤龍)(三?)이라는 사기한이붓잡혀왓는데 그는 지난사월초순경에 그와안면이 잇는고양군원당리(高陽郡元堂里)에 사는로동자 현경운(玄慶氏)(二?)이라는 총각에게시내장사정(長沙町)사십일번지조복동(趙福童)의 장녀를 엉터리도중시 안혜로 중신해준다고 속이고 이십이원을 사긔해먹은것이다

# 뽀이가作黨 손님을亂打

## 國一館뽀이들의行悖

십일밤 열한시경에 시내관수정(觀水町)에 잇는 료리집국일관(國一館)에서 시내례지정 (禮智町) 일백칠십칠번지 유우상(劉佑相)(三七)등 네명이 네시간전부터 정부사십삼원의 료리를먹은후 그회계를하다가 말성이생겨서 그료리집박(朴)지배인과전기유외삼인과 말다툼이 버러지자료리집뽀이십여명이 작당하야덤벼들어지배인의편을드러고 손님을무수구타하게되자 드듸여손님과뽀이십여명이 일대란투를 연출하게되엿다 이리하야 결국전긔유외삼인은 허리와 얼굴에 중상을입고 시내종로사정목 천호당(天浩堂)의원에 입원하얏다

**目擊者談** 현장에서 목격한사람의말을들으면 다음과갓다 손님과 뽀이사이에 잘잘못은 모르겟습니다만 자기집에 온 손님이 자기집에서 먹고취한것을 그대로 란다하야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어떠마즌것을 떠욱 구타하고잇는것은참으로 볼수업섯습니다 이래서야 어듸안심하고 주식을먹으러다니겟습니까 운운

**國一館事務員談** 국일관사무원의 한사람은 이사건에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한다 손님이 술이대취하야 욕설을과히하고 머저우리 사무원의억개를들어 뜨듬으로 드듸여그와가티싸움이되것입니다 운운

## 仁川府擴張 十月에實施豫定

【仁川】문제중에잇는 인천부구역확장은 그간부당국자들이 극비밀리에 각종조사중이든바 근조사도완료되얏슬뿐아니라총독부의방침도 시월에들어서 인가하야 주리라는데 필문한바에의하면 금번에편입될부역은 부천군(富川郡) 다주면(多朱面)중의 장의리(長意里)일원 룡정리(龍亭里)일원 사충리(士忠里)일원등으로 내정되엿다는대 이것이실시와한가지 인구도 일만삼천여명의증가를 보게되리라는바이로써 인천인구도 십만을돌파할날이머지안타한다

## 醴泉에도豪雨

【醴泉支局特電】풍수해끄테아직도 놀란가슴을 진정치못하고잇는례천읍내주민들에게구원에 대번째로 울리리밍석을일으켯다。구일오후다섯시가량되어원수가튼비는 또다시 나리기시작하야 밤열시쯤되어서는 읍내의전긔까지 일재히 꺼지어주민들의고막을 새우게하얏는데 비는 이튼날것까지 오다말다 하고잇고이번비에 농작물피해도 다소잇는모양이다。

## 不良少年感化院 京畿道內에新設

사회가 복잡하여짐에딸아불량소년의 수는 점점느려가조선에서도 최근일년간의불량소년소녀의수효는 일만팔천백팔십오인에달하며 그중에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자는 이천이백사십구명으로이들소년소녀의 구호선도는 초미의급무로되여 잇다 그런데 조선내에는 원산영흥학교(元山永興學校)한곳밧게 감화원이 업슴으로 겨우일백삼십명을 수용하고잇슬뿐임으로 총독부학무국에서는 래년도예산안에 경긔도(京畿道)내에다가 중앙(中央)감화원한곳을세우게되여 이경비오만륙천원을 계상하고 재무국의사정을마첫슴으로그 실현은 매우긔대되고잇다

# 局鐵全線 十二日開通

지난번수해로 다시불통되엿든 송려선(松麗線) 보성—려수(寶城—麗水)사이는 열하룻날부터 평상과가티 복구개통되엿고 또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외금강—고성(外金剛高城)사이 삼일포(三日浦)부근은 그동안도보련락중이엇스나 열이튿날부터 전통될모양이다

## 離婚을悲觀自殺 作業中失足溺死

【仁川】인천부 빈정(仁山府濱町)십이번지 리성곤(李聖坤)의처 리경자(李慶子)는 그전실딸 혼복(厚福)(?)을 항상 학대하기 마지아니하므로 그남편이 이를 진책하엿스나 끗끗내 듯지아니하고 학대만 점점더하야지므로 할수업시 그남편이 리혼을주장하엿든바 이를 비관하고 지난 십일 오후사시경 축항부근바다에 뛰여들어 무참히도 이세상을 떠낫다고。

▲인천부 화정(花町)일정목구십이번지 전후부태랑(天羽富太郞)(三九)이 신대환(神代丸)에서 작업중실족하야 놉히십여척되는안벽에서 떠러저 무참히도 즉사

# 孔德町에女賊!

## 越墻하는것을逮捕 取調警官에게벙어리行勢

십일밤 오전세시쯤되여 부내룡산서(龍山署)관내 공덕정(孔德町)사칠번지 김영재(金榮載)의집 판장담을 넘어드러가는 여자와 그것을 망보고 섯는 사나이가 잇는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붓잡고저 할지음에 두남녀는 도망을 하므로 쫏차가서 한바탕 싸움을 한끄테 붓잡엇는데 이때에 여자는 갑작히 벙어리 시늉을하며 입을 다믈고 아모 말을 아니해서 할수업시 그서로 데려다가 문초한결과사나이는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舒川郡鐘川面)에 본적을둔 전과일범 윤영철(尹榮喆)(三〇)이고 녀자는 그의안해인 최순희(崔順姬)(?)로 녀자가 벙어리라는것은 멀정한 거짓말이다。그는 남편되는 윤영철과 공모를한후 벙어리로 거짓꾸미고시내를횡행하면서 금고만 전문으로 도적질해나려오든 대담한내외도적인데 그전에도 사오차나가튼수단으로 도적질을 하다가 그서에 붓잡혀 오립이잇섯스나 번번히 벙어리라하여 동정해서 내노핫섯는데 상당히 다른죄가 만흘모양이다

## 自動車轢兒

십일오후한시오분에 부내현저정(峴底町)일백칠번지의 상업구호 류세종(劉世鍾)이라는 여섯살먹은 아이는 현저정백이번지압길에서 부내종로삼정목 십이번지 자동차운전수 박덕칠(朴德七)(三二)이 운전해가는 자동차에 바치여 다리가 부러젓는데 약한달반가량치료할 중상이라한다 운전수는 엄중처치게되것이라한다

# 各道水害罹災民의 移民具體策立案

## 北朝鮮과滿洲에移民할터로 實行은"鮮滿拓殖"에

남조선과 중부지방의 수해지리재민구제에 관해서는 총독부사회과에서 북조선지방에 로동자를알선해 보내기로하야 각도의리재자를 조사하는중인데 다시로동자뿐만 아니고 일반리재민을북조선및 만주에 이주시키기로되여 방금외사과(外事課)에서 각도리재민을 이민시킬 구체책을연구하는중이다 오는이십사오량일에 소집되는 지사회의에서 리재된각도의보고와 희망을드고서 정식으로 결정할터인데 이 이민계획은 일전에 창립된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의손에 곳 옴겨서 실행시킬터인데 대체로 금년중에는 북조선에만 그치고 만주이민은 수해리재민인 관계로 조선안에서겨울을 넘기고 명년봄에 이송을 개시할예정이라한다

## 濟生院도新築

전조선의맹아(盲啞) 자는현재 사만인이나되야 해마다 제생원(濟生院) 맹아부에 들어오려는희망자가 급격히 늘을뿐만아니라 맹아부의 현재건물은거의썩어저 퇴락되엿슴으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명년도 예산에그신축비와 밋확장비 륙만삼천원을계상하야 재무국사정을통과식혓다

# 藥都·開城의 人蔘祭盛觀!

【開城】우울한 장마비가 완전히 해소된 지난십일 약도(藥都)개성의 맑은하늘엔 놉흔 폭죽소리와함께 『인삼제』가 성대히 거행되엿다 『인삼개성』에 처음거행되는 명절이만큼 낫에는개성부청을비롯하야 각학교 관공서가 총동원이되여 『철도공원』여폐엇는『인삼신선사』에 참배하기에 인산인해의 성관을 이루웟스며 즐등에 꼿수를 노흔 밤에는 흥겨운 농악소리와 함께 오만시민이 구경군으로 인파만경을일우웟든바 전에볼수업든별별가지"에로""그로"한 가장행렬 기생연주등에 불야성의개성인삼 봉찬의밤은 우슴속에서 하로를맛게되엿다 이야말로 고려인삼지 개성만이축복바든 행락일이라 안할수업다。

## 祭費節約義捐

전기한바와가티 지난 구월십일을 개성선 인삼제일로 성대히 기렴하긴하엿스나 남조선 수재동포들의참상을 생각하면 우리만이 기렴을 평장히할수업다는 생각에 이번인삼제에 예산한경비를 흠신절약하야 의연금으로 재지에보내게되엿다한다

# 本洞町에傷人强盜

## 中國人胡餠家를襲擊

## 食刀로主人을亂刺、金品强請 犯人은十八歲의少年

십일밤 오전세시반쯤에 경남울산군범서면사연리 (蔚山郡凡西面泗淵里)철번지 출생으로 주소부정한 서재규(徐在圭)라는 열여덟먹은 소년은 부내 본동정(本洞町)일백칠십구번지 중국인『빵』집 왕서창(王緖昌)의집에드러가서 빵한개를 훔처먹고나서 그집에잇는 식도로써 왕서방을깨워이르켜서 돈을내라고 위협하든중 『도적이야』 고함을질르는바람에 그빵집고용인 류사종(劉思宗)외 한명이 잘을 깨여 회저까락으로써 따려서 쫏처버렷다

그는 아모것도 엇지 못하고 영등포(永登浦)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그이웃집자전거점주인 정경룡(鄭景龍)(三?)이라는 사람이 추적하야 드듸여 붓잡혀서 영등포경찰서에 끌려갓다 왕서방은 도적에게머리와등과 억개와 다리등 여섯곳에 만히 상처를 입엇는데 생명에는 상관업다하며 강도도 머리와 다리에 경상을 입엇다한다

범인은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조량정(釜山草梁町)모목렌트상점에서점원으로 잇다가삼사일전에 서울에 올라왓는데 려비도 떠러지고 먹을것이업서서 그빵집에 침입하게되엿다고범행동긔를 자백하엿다한다

◇……사진은 습한 호떡집과 인

# 工場街中心으로 讀書會組織嫌疑

## 平壤署活動의檢擧事件內容 全部八名檢擧取調中

【平壤】 긔보=평양서고등계에서는 구일새벽 형사대를총동원식혀 우중에 대활동을개시하여 공장가(工場街)에서 전회신(田和信)점원 김치두(金致斗)외 비명을검거하고 극비밀리에 취조를진행하더니 다시십일까지에 여덜명을 검거하는동시에 증거서류다수도 압수하여다노코 계속엄중취조중이다

물론 사건은 엄비에부치므로 자세한내용은 알길이업스나 공장가를중심으로 적색서적을 륜독하는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는일방 모종의결사조직에 착수하려든 계획이 탄로된것으로 추측되여 압호로 취조의결과는 퍽주목되고잇다

# 列車時刻一部變更

## 十月一日부터實施

만철선(滿鐵)의 렬차운전시각개정은 마침내 시월일일부터실시되게되엿슴으로 이에 따라철도국소관 각선의 렬차시각도일부분의 개정을 보게되엿다。

즉 경부선(京釜線)제구백십호렬차는 안봉선(安奉線)렬차와의접속관계상 제구호렬차는 금교안동(金郊—安東)사이 제십렬차는 사리원—개정(沙里院—開井)사이의 일부분시각을 각각개정하기로되엿다。

그리고 함경선(咸鏡線)도 북철선(北鐵線)렬차시각의 개정과함께 철도국선인 여해진—수성(汝海津—輸城)사이의 시각을개정키로되엿다。

# 歌劇"春香傳"公演

## 舊樂開拓의新形式

朝鮮聲樂硏究會主催 本社學藝部後援

고유한 조선의 구악을 보존하야가는동시 다시그것을 향상발전시키고자 사계의 권위자인리동백(李東伯)송만갑(宋萬甲)량씨이하여러분들이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를 조직하야가지고흥보전 배비장전(裵裨將傳)등새로운창극조(唱劇調)로 꾸미고도흥은 류충렬전(劉忠烈傳)을 편쇄창극(連鎖唱劇)으로 맨들어꾸준한 노력을 하야 오는것은수만흔 구악팬들이 함께 감사히아는바어니와 창극이나 련쇄창극은 이미시대에 뒤떨어저서 현대인을 만족케하기 어려운줄깨닷고 다시한번 새로운 형식을취하야순연한가극으로써 구악의길을개척키로 결정한뒤 위선 춘향전을가극화하야 방금그공연을준비중이다。본래 이때까지는 한편으로 극을 극대로 진행하는 동시 다른한편으로 딴사람이창극조를 불러오든것인데 그소위 창극이라고 하는것이나 창과 극으로서 시간도 맛지안코 내용도 흐리어 두가지의 효과를 다함께 말살시키는 경우가 만흔만큼 차라리 극이나 창만을 따로이하는것만 효과가 못한지라 단연히 그러한 형식을 버리고 무대에등장한 인물들로 하야금 직접 창을부르게하야가극으로서의 새형식을 취하자는 것이다。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가극춘향전을 공연키위하야 이미 석달전부터 방둥도와 명령한연출로는 리동백 송만갑씨는 물론 김창룡(金昌龍)정정렬(丁貞烈)오태석(吳太石)박녹주(朴綠珠)정남희(丁南希)제씨등 이미구악계에잇서서 정평이자재한 분들인만큼 만도의인끼를 비롯시키고 남음이 잇다。사회각방면의인사들도 이와가튼구악의 새로운시현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어들는지 몰라서 상당히 주목하고잇는모양이다. 가극춘향전의공연으로본사학예부의 후원아래 구일이십삼일량일에 열게 될터인바장소라든가는 아직 결정치못하얏다。

# 仁川署高等係에서 青年數名檢擧

## 多數赤色書籍도押收

【仁川】지난 십일 오후하시경에 인천서 고등게에서는 게원총출동으로 『차이드카』로써 인천부외 장의리(仁川府外長意里)근방에 급행하야 청년수명을검거한후 그중에 김모(金某)(二二)라는 청년의집에서는 좌경(左傾)서적 수십권과 필기한 노트등을 압수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은 극비밀리에 회부함으로 알길이 업스나 모종의 비밀결사의 관련이나아닌가한다고한다

## 鐵工場主人이 結項自殺

시내 길야정(吉野町)일정목 구십일번지 공신철공장(工信鐵工場)주인의축하 량덕성(梁德成)(三?)은 실업번지 기집이층에서 목을매여 자살하엿는데 유서가튼것이업서 자살한원인은 알수업스나 젊은사람에게흔히잇는 실련이아닌가 추측된다고한다

結婚 을……하실 方面의下命은 中央으로

## 公州地方法院 明年에大田으로

법무국에서는 다년간의 현안이든 공주(公州)지방법원의 대전(大田)이전을명년도에 실현식히고저 예산에삼십만원을 요구하엿든바 재무국의 사정에통과되엿슴으로 명년에는 이것의이전이실현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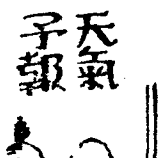
# 小鹿島設備擴張

## 明年에千名收容

경무국위생과에서는 명년에 소록도(小鹿島)리병(癩病)환자수용소를확장하고저 이에관한 예산을요구하엿든바 재무국의 승인을밧게되엇슴으로 명년에 다시일천명의 문둥병자를 수용할작정으로 설비를확장하게되엿다

따라서 명년도에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의 수용자 사천명과 합하야 오천명의 환자를수용하게 되야 실로 세계제일의 문둥병료양소가 나타날터이다。그리고 소록도의 료양소는 명년도의 확장으로 섬의 면적식료품중 부식물(副食物)의 자급자족등의 관계로 보아 이이상 더 확장할수업스므로 명년도의 확장으로 소록도의 시설을 마치게 되리라한다。

## 天氣予報



**槪況** 弱한低氣壓은 東支那海와九州北部에잇고不連續線으로東進하고잇스며高氣壓은滿洲朝鮮國境과오호쓰크海로퍼지고잇다滿洲、朝鮮은天氣가조와지며좀선선해진다仁川、平壤에는안개가끼엿것이며朝鮮海峽은비가오실듯하다 日本內地는흐려잇스며溫度는퍽나저질것갓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날이조흐며 明日도갓다 그러나아침에는 안개가지옥하게낄것이다

昨日最高 二四度七
同 最低 一五度六
今朝最低 一三度七
今日正午 二四度七


高速度 補血強壯劑

蔘삼 茸용 精정

登山의가을!

지금은 가을! 服藥의 가을!

여름철더위와지리한 장마에지친몸을恢復식혀야할가을은왓다 이때를일치말고時刻을을다투어라服藥의첫가을을!

田野는黃金물결이 출넝거리고 뒷산에는붉은丹楓이수노와진가을。시원한한모금의바람을마시면서거려가는가을의登山。여기에서우리는한層더 大自然의惠澤을맛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服藥者의게큰援助를주는것이라하겟다 그러면

어떤補藥을撰擇할것인가 勿論補藥도 그數가만흐며 誇張된宣傳을하고잇스나 그効力이如實치못하다는것은누구나다-부르짓는바이다

다만三尺童子라도能히認識할수잇는人蔘과鹿茸이것뿐만은

靈山白頭山의精氣 를타고난 우리朝鮮사람에 게하나요들이아닌絶大最適의補材라하지안을수업다 누구이라秦始皇의不死藥도이것이며 神農氏의遺藥도이것일것이다 그러나 다가튼 蔘茸製劑라할지라도 그調製如何에잇서서 그奏効力이다른것이니 果然現下醫藥界의革命兒이며 旭日昇天가티나타난것이곳蔘茸精이다

蔘茸精의特長을보라 이蔘茸精은 人蔘과鹿茸의精分을 最新藥光學的方法으로서 露出配合한外에 有機鐵分等數種의 高貴强壯劑를合理的으로 配合한지라如何한體質에나맛지안는일이업스며 病弱者나 健康者나 男女나老幼를勿論하고 한번服用하면 顯著한効果를보지안는이업스며 苦熱에疲勞衰弱한몸을恢復식히기爲하며 病後虛弱한몸을爲하야 姙娠婦를爲하야 榮養不良兒를爲하야 或은肺結核患者나 神經衰弱者나 陽氣不足者를爲하야 斷然히잇지못할것을 勸하는바이다

鮮滿有名藥店販賣

鮮滿總發賣元 京城授恩町三二 朝鮮商會 電光七八五番

# 胃腸·榮養

## 衰弱疲勞의恢復

「わかもと」의 在來의化學製劑와다른 가장큰特色은細胞原形質賦活作用(ProtoPlasma-Aktivierung)이라고부르는作用에依하야 生體全般의機能을 活潑히하고衰弱을恢復하는것으로서 特別한疾患이업서榮養이 充分치못하고 疲勞하기쉬우며 感氣其他病에걸리기쉬운等所謂虛弱體質素에對하야 榮養療法抵抗療法等을 同時에行함과가튼效果를齎來합니다

### 作業

肉體作業과 精神作業을勿論하고 그作業能力이低下하고疲勞하기쉬운분이잇습니다, 이러한분은特히비타민B의攝取를必要로하지만「わかもと」는 비타민B의가장豐富한 特殊한헤ㅣ뮈菌製劑로서 이것을補給할뿐만아니라 疲勞하기쉬운作業能力을昂進식히는效果가만습니다

### 睡眠

腦神經의 衰弱은자주不眠을招來하고 不眠은全體的인體力의 衰弱을招來합니다「わかもと」는 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依하야 腦神經의機能을活潑히할뿐만아니라이에對한 特殊한榮養素인 燐酸化合物을包含하고 自然히不眠을 免할수가잇스므로 頭腦過勞의害를顧慮해야만할분들에게 推奬됩니다

### 抵抗

疾病의 增惡을防止하고 治癒를돕기爲하야 抵抗力의增强을圖謀하여야할것은 말할것도업지만「わかもと」는 細胞原形質賦活作用外에 白血球增加에依한 喰燼作用增大等의效果도잇스므로 結核其他慢性衰弱疾患에對하여서는 胃腸의機能을强化하는以外抵抗力을增强하야治癒를促進합니다

## 胃腸機能의强化

わかもと는모든 胃腸機能의衰弱한疾患에常用됩니다。胃腸衰弱의症候는 種種雜多하야 在來의療法으로서는 그症狀에應하야各各다른藥劑가授與되지만わかもと는特殊한藥用헤ㅣ뮈菌의體內에包含한諸成分의綜合作用에依하야 單一劑로써널리이 胃腸症狀에 效果를奏하고共通原因인機能의衰弱을恢復하야 病症을消散식힙니다

### 食慾

胃腸衰弱의한現象은食慾減退입니다。食慾催進劑로서普通苦味劑와單寧劑가使用되지만 わかもと는 그藥劑와性質을달리하고 食慾素의이름으로써 膵臟호루몬 性物質或은 비타민B等을 包含하고食慾을增進하는作用이强하고 急性傳染病의恢復期、肺結核、產褥、食慾의減退가重大한障害가되는境遇에使用하야顯著한效果를나타내입니다

### 消化

消化不良도 胃腸衰弱의한症狀으로서在來는지아스타ㅣ제그他消化劑를주어減退한 消化作用을補充하는方法을取하는것이지만 わかもと는 그消化劑와同一成分을 含有하엿슬뿐만아니라 胃腸의機能을 强하게하야 減退한消化作用을 自然히活潑하게하는것이므로 如何한種類의消化不良에도잘 效果를發揮합니다、

### 便通

最後로서 胃腸衰弱의症候로서 看做되는것은 便秘입니다、이것은腸의 運動機能의衰弱으로 腸內細菌의繁殖으로 老衰를招來하야 容色을害하는等害를釀成합니다 이에對하야「わかもと」는 在來의下劑와달라서 腸을刺戟하야 不自然히便通을 催促할뿐만아니라 腸의正常한機能을活潑히하야 生理的으로自然히便通이잘되는故로 副作用이업서가장 推奬되여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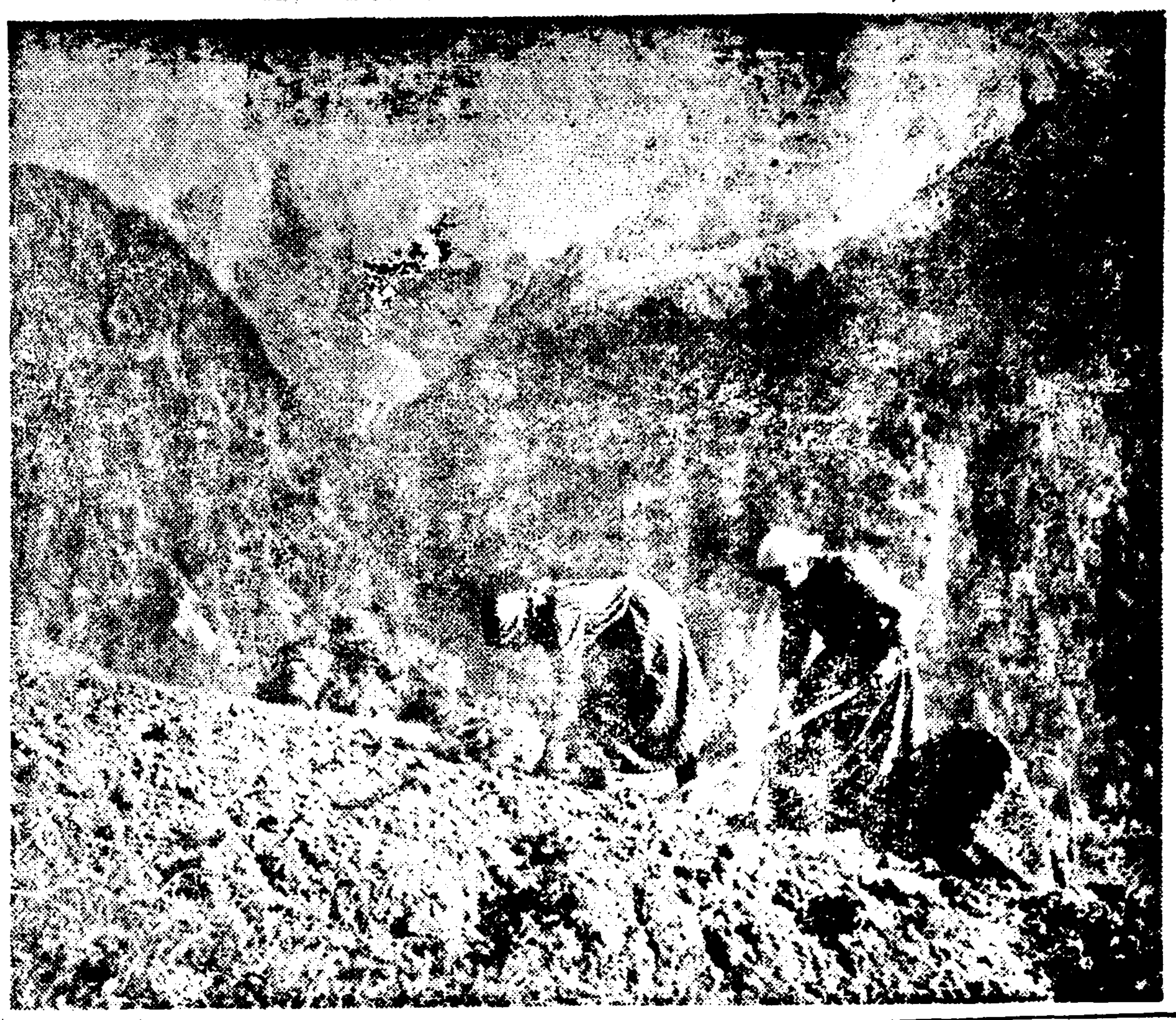
藥價低廉

一圓六十錢 粉末九〇瓦錠劑三〇〇錠

三百錠은大人에는廿五日量・十五歲前後兒童에는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五十日量・三歲前後에는六十日量에該當함

● 株式會社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大門際・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 名畵아닌 生의悲哀

『알프스』연봉 웅장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가지고잇는 『스위스』란나라——촌으로 나가면 여름에도 허-여케 눈이싸인 태산준령을 배경으로하고 산비탈에서 밭을 가는 안악네들을 볼수 잇습니다。완연한 그림의 한폭이지요。그러나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보는사람은 무심한 나그네들 뿐일것입니다 이 황무지를 밧가라 얼마안되는 양식을 거두어 근근히 목숨을 보전하는 그아낙네들。그들의 가슴속에 엇재 『삶의비애』가 샘물처럼 소사오르지 안켓습니까?

## 말못할어린심사! 교실에만 드러가면 골치압흔병

### 피병으로알지말고 살펴십시요 원인을캐보면여러가지

학생들중에는 교실에만 들어서면 고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퍼서 공부를 못하고마는 아히들이 잇습니다。그것을 학교두통이라고 이름지읍니다。그런데 학교두통이잇는 학생들을 공연히 학교가기 실혀한다고 걱정이나하시고 공부잘못한다고 성화나 하시어서는 그아히만 점점 더 버릇지 아모 소용이 업습니다。첫재로 학교두통이 안나도록 선생님이나 부모나 다한께 주의하시고 둘째 학교두통이 잇는아히에게는 잘 고치도록 그역시 선생님이나 부모나 다한께 노력하서야 합니다。

물론 학교두통을 걸리는아히중에 학교두통이 제일만습니다。다소 신경질로 생기고 공부에 마음이 잘 붓지 안는 아히들은 미리부터 경계를 요합니다。그러나 밤늣이 신경질에 한하야서만 잇는것은 결코 아닙니다。보통의 아히들도 그러케 되는 수가 적지 안습니다。그 원인으로는 학교의 교수과목이 넘우 만커나 선생님의 가르키는 것이 넘우 어렵거나 또 교실안의 공긔가 나쁘거나 하야 한번 두번 두통이 나든것이 고만 그 두통이 버릇되야 가지고 언제나 교실에 들어 안즌 때에는 두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변비가생기거나 밤에 적거나 옷이 를 편하야가지고 인해 두통이 나는수도 잇습니다。

×

그러니까 교실안의 위생에 대하야는 학교에서잘주의하여야하고 아히들의의복에 대하야는 부모가 잘주의하여야 됩니다。한두번쯤이야 그다지 문제가 되지안치오만은 그 것이버릇이되지 안토록은 절대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학과를 공연히 만케 하거나 선생의 설명이까다로워서는 원래 아동건강상 큰문제요 집에가서도 무리한복습이나 십부름을 시키어서는 그역시재미업습니다。대체로 공부에재미를 붓도록 인도하는동시에 마음을 놀리고 도읍아야합니다。그런이아니라 변비증 안경기치통축농증으로도 학교두통을 이러키는 수가잇는데 그런아히는 그근본되는 병을먼저고쳐주시기 바랍니다。귀나코의 병으로는 두통하는 아히가 천치로변하는수잇서 본래부터 무서운것입니다。

×

이미 학교두통이잇는 아히는 선생님으로부터 다소의 용서를 가지고 교정을 시키어야만됩니다。즉다른아히들보담 좀더 자유를 주어서 공부에 취미가 붓도록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츰마다 냉수마찰을 시키는것도 조코、일요일마다 아외산보를 시키는것도 조코、어쨋든지 신경을 튼튼히 해주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칼피라민이라는 약을 내복시키기도한답니다。

## 家庭

## 어린애들지도에 작난감이큰영향

### 선택을잘해주십시요

어린아이들의 성질을 살펴보면 여러가지종류가잇습니다。어린이들의 성질을 차착치도안코 소위『동심』이라는것을생각지안코 어룬들마음과생활속에서 지도하는데 늘무리가 생겨서 그아이의천성을 그르치게되는수가잇습니다。그러므로 어린아이를가지신 부모들은 어린이의성질을 첫재잘알어야할것이며 아다음에는 그성질의 장처와단처를 짐작하여서 장처를도우고 단처를서서히고처가도록 힘쓰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의성질을 바로잡고 지도를하는데는 여러가지방법이잇스나 그중에도 작난감가튼것을 리용하는것이 조흔방법입니다。

례를들면 실행력이업는아이는 신경질이요 우울질이여서 흔히재조가잇는우등생중에서 만히볼수잇는성질들입니다 이종류에속하는아이는 상상력이강하고 공상이만허서 무슨일에대하야 생각하고 연구하다가도 그것을실행하기전에 벌서 다른일에대하야 생각하고 공상을시작하는것입니다 그리하야 자칫하면 엄토당토안한는 림병이가되여서 도로혀호리몽둥하게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생각하느라고 다른것은 돌보지안코 남에게보일때는 바보가치보입니다 이러한 아이는 의지가약하고 우유부단하야 무슨일을 구경을지우지못하는것이 결점이나 남의처지를 잘리해하고 동정하며 계획이 크고 영리한까닭에 지도하기도 몹시 힘들게됩니다 이런아이의 결심을고치라고 조흔장처를 이저버리고 잘못지도하면 버리기쉽습니다 위선실행력을 도우는것이 필요함으로 첫재적극적의 사력을배양하고 육체적 훈련이될활동적인노리개깜을 주는것이 조흡니다 이런것을 도우고양성하기에는 공、그네 연가튼것이 조코 새연필도회용지가튼것도조습니다

## 놀고먹는 猛獸아파-트의 식비조사

동물원에잇는 맹수들은 도대체 하로에 얼마식이나 먹으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것은 우리가 동물원에 갈때마다 알아보고십흔 일입니다

동물원 즘생들은 창경원만하야도 식구가 엄청나게 만허서 하로동안 식비가 얼마나되는지는 자세히 알수업스나 그중 사자、범、곰과가튼 맹수류의 하로먹는 분량과 식비를 알어보면

◇사자는 하로 두끼식 먹는데 한끼에 말고기 일관삼백몬메、토기고기 륙백몬메、우유사홉을 먹는데 하로 식비가 사원남짓이 든답니다

◇범은 하로에 두끼식먹는데 한끼에 말고기 일관오백몬메、우유사홉、을먹고 하로 식비가 삼원。

◇곰은 하로 한끼식 먹는데 비지 엿찌개미를 반밧식 섯고 그속에 감자를 너허 먹는데 하로 식비가 겨우 삼십전! 곰은 이중에서도 늣긴바잇서서 단연 채식을 하는까닭이랍니다

◇코끼리는 몸집이 큰가닭에 하로한두끼로는 세음이안되고 하로에다섯끼나 여섯끼쯤은먹어야한답니다 감자、고구마 버짇、홍당무를 번가려가며 먹는데 하로식비가 팔원이넘게 고도손님들이 던저주는 눈깝만큼한『비스켓』을 바더먹으라고 점잔치안케 코를휘휘두른답니다。

## 왜간장과설탕

### —조코납분것분별하는법

요사히는 조선가정에서도왜간장을 만히들 먹게됩니다그러므로 왜간장의 호불호를 가리는 법도아러두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사히는 왜간장가운데도 브랑숨이 만히잇슴으로이것을 모르고 사서쓰다가는 돈은돈대로 업서지고 간장은 한번도옳흔것을 못먹어보고 말것입니다

첫재 왜간장은 그 빗갈과향긔와 맛을 가지고 호불호를 가리게되는 것입니다다위선 간장을살때는 적은유리병에간장을너코 그것을 해빗헤대이고 보면 붉은기가잇스면서 겁고 일낭이 환하게비치어서 나오면그것은 조흔간장이라고 보아틀리지안습니다 그러나 붉은빗치업고 락하며 해빗치뚤러지지안흔것은 조치못한 간장입니다

향긔는 접시가튼데 따루어서 마러보고 맛이 잇서보이는 왜간장 특유의 향긔를가지고 잇는것을 골르도록 하며 맛은 어보면단번에 혀끗에 단맛이나는것은 조치못한간장입니다 혀끗을대여보아도 자연스럽고흔흔하게단맛이나며 짭짤이적게나는것이조흔것입니다 간장이야기가 나김에 장감설탕이야기도 하겟습니다다만 요사히우리네 가정에서 음식작만하는데 설탕을만히 쓰기는하나 설탕을엇던것이조코 납분지 골리는법을 알고잇는지 모르겟습니다

백설탕을 컵에 조곰너허서더운물을붓고 딸딸개여보면 조흔것은 물에 잘풀려서 물이말금합니다 그러나 빽빽하게 흐리고친전물이 잇는것은 깨끗지못한설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설탕을살때 아조눈가치히고갈마르것이 상등이니 이런것을골르도록합시요

## 잇스면 요긴한그릇 사두고십지요

이세상은 긔게시대입니다。무엇에나 긔게가 생기어 편리하고 간단하게 됩니다。

우리네 부엌에도 마찬가집니다。별별기게 묘묘한 긔게가다 생기어나납니다。그러나 아즉도 구식가정에서는 어떤긔게가 생기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만치 안습니까? 그래서 어듸 현대인의 가정이라고 말할수 잇습니다。그중의 필요한 몃가지를 소개하야 드립니다。한번 사다가 시험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1)커피메이커- 이주전자에는 거피를 거르는그릇과 탕크가 잇는데 두군데 모다 자스눈이잇서서 그 자스눈대로물과 커피를 너흐면 언제나 맛난 커피를 맨들수 잇답니다。갑슨 미국제로 사원삼십전 가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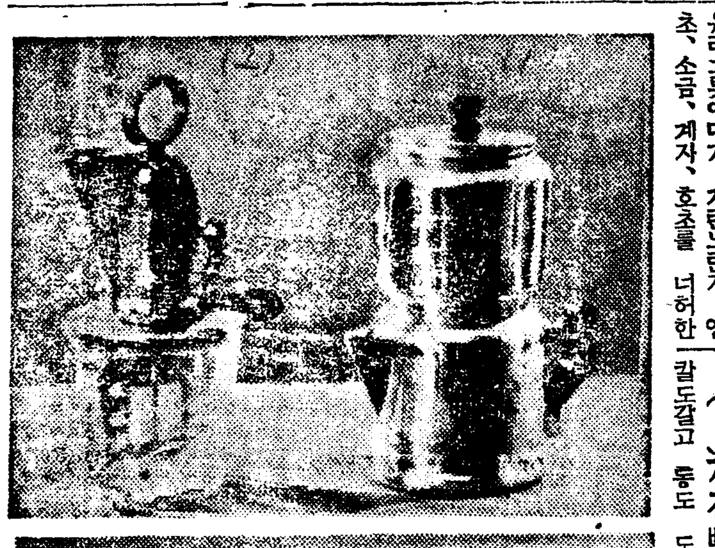
(2)마요나이스 유리그릇에다가 계란노린자、양초、소금、계자、호초를 너허한테 섯고 여페부튼칼대이로 사라다기름을 부은뒤 아래편의마개를 막고 손잽이를 돌리면자연히 마요네스소스가 되야버립니다。갑슨 일원칠십전가량입니다

(3)계란반숙긔 남비에 물을 끄리어노코 계란반숙긔에 계란다섯개를 담아서 옴겨노핫다가 오분뒤에 끄내면 꼭반숙이됩니다。갑슨 십팔전가량입니다

(4)가진빼개 칼도갈고 통도 도라고 유리도 베고 생선비눌도 뜨더서 가지각색으로 쓸수잇는 빼개(센누기)입니다。갑슨 독일제로 칠십오전가량입니다。

(5)포테트·맛샤 감자를 속에너코 손잽이를 놀려매면 줘사리 웅깨집니다。갑슨 일원가량입니다

(6)노린자뽑는긔계 이것을 고뿌우에노코 거기다가 계란을 깨트려 떨어트리면 흰자는 고뿌속으로 떨어지고 노린자만 우에남습니다。갑슨 십칠전가량입니다。



## 家庭婦人會月例會

가정부인협회에서는 래십이일(토요일)、시내인사정 태화녀자관(泰和女子館)내에서 월례회를 열기로되엿는데 회원은 누구나 참석하기를바란다고

## 曆

九月十二日(土) 舊丙申七月大(廿七日) 丁酉·火·柳·建

●祭祀에宜함 ●秋分 廿三日(舊初八日) ●寒露 十月八日(舊廿三日)

## 물에빠진사람 구조하는연습

전불란서 수영선수권대회가 얼마전『토-렐』이란곳에서열리엿는데 이대회경기 가운데에서도 가장인끼를 끄럿은 인명구조연습 즉물에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연습이엇습니다 이경기에서 우승한사람은『쇼베-르』양인데 고무로맨든 인형을 물에빠진사람처럼꾸며가지고 물밧그로 잡아끄러내는 연극가튼 경기이엇습니다【同盟□寫眞】

## 童話劇 男妹 ❶

金相德

때-느즌가을
곳-어느시골
—나올사람—
아버지(나뭇군)(마흔살)
어머니(게모、나중엔마더) 스므서너살
정남이(정순이옵비)열세살
정순이(정남이누이동생)열한살

第一幕 정남이집방

(무대)구차한집차림 벼인책상하나와 헌교의가 서너개 노혀잇다。막이열리면 정남이는 무슨생각을정신업시하고잇고 정순이는 양말을꾸매고잇다

정순이 『옵바 우리들은왜 맨발로단길가? 신발이업서 그럽까?』

정남이 『아니란다 우리는 늘들에만 노니깐 신을 안시너도 관찬탄다』

정순이 『옹-그래 난이제 잇엇수。』

(이때 먼절에서 저녁종소리가 들녀온다)

정순이 『옵바 벌서 저녁종소리가 들녀오지 저-어제배우든 노래해볼까?』

노래(정순이독창)

책상우에 오뚜기 우숩고나야
검은눈은 성내여 뒤룩거리고
배는불룩 내민팔 우숩고나야
×
책상우에 오뚜기 우숩고나야
술이취해 얼골이 빨개가지고
비틀비틀 하는꼴 우숩고나야
(尹石重 謠)

정남이 『아유 참잘하는구나。』

정순이 『머-릉。』

정남이 『정순아 그런데 너-배안곱흐냐 나는배가곱하서 죽겟다。』

정순이 『그럼말한대야 소용업지안우 집에는 아모것도 먹을것이업는데。』

정남이 『어서 아버지가 돌아오섯으면 조켓다!우리들도 밥을먹을수가잇겟는데 아주기운이 하나도업고나。』

정순이 『옵바 참우리는 왜이럿케 구차할가?아버지는 날마다 그렇게 일을하시는데。』

정남이 『너는 아즉 어린애니까 잘모른다 그것은 모다 어머니가 나빠서 그렇단다……공연이 조흔옷만입고 갑만흔 반지나 사끼고 또 죄다술만사먹으니까 그렇단다。』

정순이 『나두일후 꼭그럼줄알우 나는이번어머니는 아주 무서워 밤낫 때리기만하구 아주 베기가 실혀 죽겟서。』

정남이 『나도 무서워 그전어머니는 우리들을 퍽사랑하야 주시엿지 어머님은 우리를두고 왜 돌아가섯서』

정순이 『참-아버지는 불상하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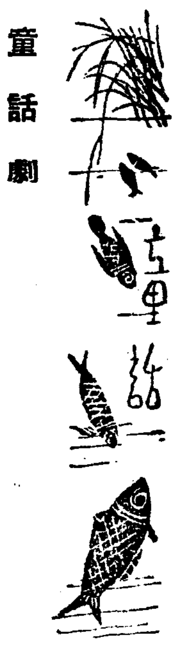
정남이 『정순아 이젠 그런생각 하지말자 그리고 재미잇는 애기나하자 옹。』

정순이 『배가곱흔대 얘기할기운이 잇나 난 아모것도 못하겟서。』

정남이 『그러나 그저안저잇는것보단 얘기나하고잇는것이 배곱흔 생각 업서지고 조치안허-옹。』

정순이 『어머니가 오시면 또 사살 듯지안우-! 아이난 무서웅。』

(박게서 레코-드소리가 들녀온다)



## 귀동냥

### 초가곰팡안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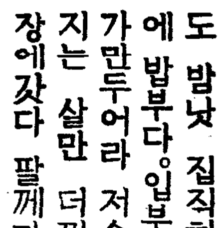
음식에넷는 초가 여름이면곰팡이가피고 초파리가쯧게됩니다 이것을 방지하랴면 초에소금을 조곰처두시고 병우겅을 단속하시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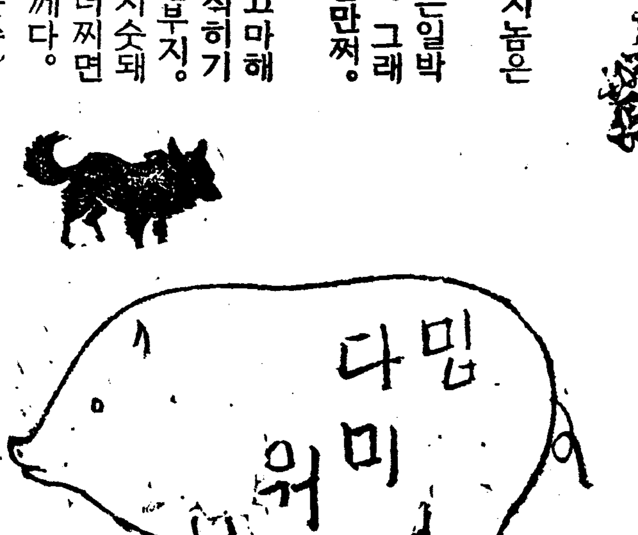
## 「돼지」

꿀·꿀·꿀 돼지놈은
참밉지。
종일가야 먹는일밧
게일이업다。그래
서 저러케 살만쩌。

삽사리는 조고마해
도 밤낫 집직히기
에 밥부다。입부지。
가만두어라 저숫돼
지는 살만 더찌면
장에갓다 팔께다。

(글쓴사람 지윤수)





## 한잔의牛乳도 제때에 마시면 조코 때아닌때에는해롭다

# 梅毒의治療는速히바로

# 恒常發病의機會를엿보는潛伏梅毒

## 些少한餘病이導火線

盛夏에는 서로健康에注意하므로 比較的疾病이적으나 殘暑季에들어 多少涼風이불때되면 急作히 病人이느는것입니다。特히壯年期 梅毒이잇는 梅毒性의疑心잇는사람、또는顯實梅毒에걸려 苦生하여본사람、現在梅毒으로 苦生하는사람——이러한사람은 特히이때에 注意가必要합니다。

### 放心은禁物

梅毒만은 自己自身은勿論 專門家가보아도 全快된것가티보여도 菌體가한個라도 生存하야血液內에잇스면 그것이五體의모든機關에들어갑니다。特히무서운것은 潛伏梅毒으로二年이나三年도體內깁히潛伏하야잇스나 그사람의身體에榮養이欠乏하엿다든가感氣에걸렷다든가하는때반다시梅毒菌은急速으로表面化하야 皮膚에發疹을나타내며 脫毛、咽喉障害、關節痛、神經衰弱、頭痛、動脈硬化便秘等의 不快한 症狀을 나타냅니다

### 이事實談

또한 어려운것은 梅毒이腦組織을 侵害하는것입니다。

이것은 最近의 實例입니다다만 어떤血氣旺盛한靑年이、花柳界에서淋疾에걸녓는데、自身도『男子의病』쯤으로생각하야 輕視하엿섯다。그러대이것이어쩌면 病겹리지!一週間도채지나기前에 죽어버리고마럿습니다。醫師도 看護人도、너머나突然한데는놀도나지안엇다는데、그러나잘調査하야보니벌서이사람은 潛伏梅毒이잇고잇스므로 이것이淋疾에걸닌機會에、突發的으로第三期第四期梅毒에도相當하게梅毒이惡化되여 그만귀여운生命을업새버렷습니다。이러케、梅毒性이잇는사람은 梅毒에 關係업는些少한疾病인때에도突然히나타나、惡魔와가치貪여

### 衛生의普及

그러고로梅毒感染의疑心이생기거든、于先專門家의 診察을밧고自己自身이 適當한治療를 하거나 充分한警戒가 必要하고 또當局方面이 嚴重히衛生思想을普及하는所以도 여기잇는것입니다 먼저自己自身이 治療라는것을알하여습니다만 이것에는 效果잇는藥을 使用하는것이 第一條件으로 驅梅內服ベルツ丸과가튼것은 推奬할만한 良藥이라고밋습니다。

### 藥劑의眞價

ベルツ丸은 單順히 毒을解消한다는것뿐아니라 簡單한 藥劑가아니라 規則잇게 連服하는때에는 腎臟液의 梅菌을發散하고 또殺菌하고、一方排便에依하야毒素를體外에 放出하는 能動力이잇습니다。이러케血液의 淨化에依하야、自然히新陳代謝機能을向上시키고、胃腸等도强化되여全身에活氣를띄이고頭腦를明朗하는等진짜의健康素를各臟器에各細胞組織에作用을합니다。그럼으로、ベルツ丸의效果는 梅毒의伏潛與否에關係업시 모-든梅毒疾患에奏效합니다

### 低廉을자랑

一般梅毒 體毒 瘡毒 橫가래 發疹 여드름가튼 부름 腦梅毒 遺傳梅毒 脊髓癆 神經痛류마티合 動脈硬化 便秘等에 現在煩惱하는사람 疑心잇는사람은 躊躇말고 本劑의服用을 實行하야 從來의憂慮를 掃除하는것이 自己를 爲함이고 家庭을 爲함이요、또한 國家를 爲하는것입니다。特히ベルツ丸은 效果를 자랑하는 同時에、大衆衛生의 見地에서 藥價의 低廉을 자랑하는 良劑로서、全혀梅毒에 煩惱하는사람에게 참으로 忠實한진짜의 梅毒專門藥이랍니다。

### 廣範圍에亘한販路

正確한 效果를 자랑하는 驅梅內服藥ベルツ丸은 全國各地의 有名藥店及 百貨店에서販賣 또한 歐米諸國에도 輸出되여好評이赫赫합니다。但直接發送을希望하는분은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鈴木日本製藥社(振替東京百五番)으로[illegible]하여주시요。

商標 登錄

梅毒과 體毒에 참效果를 자랑하는

# ベルツ丸

治療는 迅速 正確

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
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卅圓
送料各十五錢海外四十二錢

本舖·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鈴木日本製藥社
振替東京百五番

# 故事拾綴 ② 新羅僧의渡竺者

湖岩

石[illegible]를 작은뒤 [illegible] 와 [illegible]에 놀려잇고 [illegible] 작은뒤 [illegible] 華美한 [illegible]式에 놀려잇고 [illegible] 超俗을 작은뒤 新羅僧侶의 學術上 永久偉大한 貢獻에 놀라엿다。

新羅의 本土로 말하면 오늘날 저 和蘭 白耳義와 비슷한 [illegible]의 小山으로 三國鬪爭의 渦中에서 最後勝利를 엇게되것은 强者를 操縱하는 巧妙한 그 外交와 또는 戰必勝、攻必取하는 優秀한 그 武力에 힘닙은바 크다하겟다

그러나 그外交와武力의 背後에는 一般國民의 꾸준한文化的努力이 基調가 되어잇는것을 忘却해서는 아니되는것이다。그中에도僧侶의 文化運動은 가장核心이오 또代表로볼수잇섯는바 大體로 貴族은 政治를負擔하고 武士는戰爭을負擔함에 對하야 僧侶는 文敎를負擔하야 다른古代國家에서 흔이보는바와 가티 新羅에도 一種分業合作이 行하엿섯다。勿論이때도 庶民階級은 産業을 負擔하야 社會의土臺를 지엿스나 文敎를負擔하야 知德을 製造하는 僧侶階級의 活動이 매우 顯著하야 그네들의 足跡이 거의 當時의 文明世界에 印치지 안흔데가업게되엿다。

傳法을 爲하야 求法을 爲하야 또는 [illegible]을 爲하야 文化의 [illegible]으로 最 [illegible] 거니와 다음에 [illegible]求法高僧傳에 나타난것만 하야도 前後한 것과가티 九人이되다。지금 그 姓名을 머저말하는것이 順序上 便利할듯하다。

一、新羅人 阿離耶跋摩法師는 唐貞觀年間에 長安을 出發하야 印度에 가서 그當時 印度의 最大學府인 那爛陀寺에 居住하야 律論을研究하고 衆經을抄寫하야 修道에精進하다가 七十餘歲에 그절에서 죽엇다고。

二、新羅人 慧業法師는 唐貞觀年間에 印度에 가서 처음에는 釋尊의傳道하든 菩提寺에 잇다가 그後 那爛陀寺에 [illegible]

三、新羅人 求本法師는 그이름이 傳하고 行蹟이 하나도 傳하지 안엇고。

四、新羅人 玄太法師는 唐永徽年間에 中印度에 가서 菩提寺에 [illegible] 東土로 도라오는길에 [illegible] 만나 [illegible] 시름려서 印度의大覺寺(菩提寺)에 가섯드니 그所終을 알수업다고

五、新羅人 玄恪法師는 唐 [illegible] 玄照法師(海東高僧傳에 玄照를 新羅人이라함은 誤記)로 더부러 貞觀年間에 印度大覺寺에 이르러 聖蹟을 巡禮하드니 四十餘歲에 疾病으로 죽엇다고。

六、新羅人 法師 二名이 잇스니 그諱조차 알수업다。다만 그네가 長安으로 出發하야 멀리 南海에가서 舶泊으로 印度에도라가다가 疾病을 맛내여 한꺼번에 죽엇다고。

七、新羅人 慧輪法師는 일즉 佛陀의靈蹟을 憧憬하야 唐에건너가서 長安에 어느 [illegible] 따라서 西行하야 이미印度에 [illegible] 十年을 지내여 다시 東北方의 覩貨羅國에 머물게되니 本來이 절은覩貨羅가 創建한것으로 [illegible] 供養이 豊足하엿스며 寺名은 健陀羅山茶이다。慧輪이 여기잇서서 梵語에能通하고 俱舍에 의숙한 途方長한 人物이다고。

八、新羅人 玄游法師는 僧哲의弟子로 그師를따라 師子國(今錫倫島)에 가서 出家하야 그곳에 居住하고 말엇다고。

우리가注意할것은 그네高僧이 一人도 新羅故國에 도라오지아니하고 印度나唐에서客死한것이다。

# 學藝

## 語原考證數題

—古語에남은現代的意味—

② 梁柱東

### 남진

『夫』의 古訓은 字會와 月印에 모다 『샤옹』이라 하엿스나、지금은 完全히 廢語가 되엿다。中古에는 『남진』이란 말이 現行語의 『남편』에 相當하엿다。

그남진 그마기 갈지고 날오디(其夫償戍且行、曰)(三綱行實陳氏養姑條)

열여스세 남진 어려며니(年十六而嫁)(同上)

『남진』이란말은 『남신』(男人)의 音轉이다。

男子는 남지니라 (月印卷一)

### 어른

現行語에 長者를『어른』或은 『어룬』이라하고、他人의 어버이를 敬稱하야 『어른신네』라한다。文獻에는『얼우신』이 보인다。

얼우신이 날포하야 아기를 뫼수와 도라가 (夫人舍我、寧關郎耶)(三綱·不事夫族條)

그러면 이『어른』『얼우신』의 語原은 무엇인가。

古語에『嫁』『娶』는 모다『얼우노』라한다。(字會)

嫁 얼일가

나히 열여스세 남진어러더니 (年十六而嫁)(三綱·陳氏養姑條)

다못남진 얼우려커늘 (將取而嫁之) (同上)

죽도록 다못겨집 아니어드니라 (終身不娶)(同上·媒姜解裙條)

그런데 이『嫁』『娶』의 古訓『얼우』는 그原義가『어우러』『交合』에서 되것이니 現行語에는 男女의 醜聲을 가리치어『얼러다』하거니와 左의 用例를보면 世間의消息을 알것이다。

평상우희 벼야두고 아무려케 놀 (置樣牀之上 競吹之)(三綱·崔氏誓死條)

겨집을 두려가 구틔여 어루려커늘 (欲娶 强欲淫之)(同上·崔氏條)

左例『어루』『交合』의 義로 轉用된 『配偶』『嫁娶』의 義로 轉하엿스매 『어른』이라함은 곳 『얼운사람』『얼운』의 略이니、그原義는 『配偶者잇는이』、곳 旣婚者의 뜻이오、『어른신네』亦是그러하다。

『長者』『嚴親』의뜻을가진 『어른』『어른신네』란말의 語原이 『嫁娶』乃至 『交合』인것은 興味잇는일이다。

### 화낭

俗說에『화낭』을『花娘』이란말이라고 『花郎』이란 말이잇다。俗語로는『花奔』를『화냥』이라 한다。『화냥』과 『화낭』은 同義語다。

그런데 이『화낭』처럼 語源에 對하야 異說이 만흔것은업다。

漢學者들은 이를『豢養』으로 解釋하야 『牛馬가튼』 或은 『牛馬나 치는 奴僕』의 義로 생각하엿다。또심지어 芝峰類說에는 다음과가티 說이 보인다。

松窩雜說云、中原七家嶺之西五里許、高峰之上有基、名曰幻爺山。譯者言、昔有人生子不順、言東則向西、問北則指南、…其父病且死、囑其子曰、死必葬我於高峰之上、意欲傳平地而葬、故反言之。其子乃曰、臨死之言、不可不從、乃葬于此、以其變幻其父之言故名。……余意今俗罵人、必曰幻爺之子、疑以此也。(卷十六·誹謗)

이것이 曲說임은 贅論할것도업다。『豢養』이나 『幻爺』나 모다 『花奔』의 意인 『해궁』이란말을說明치 못하는것은 根本的缺陷이다。

나는 이 『화낭』이란말은 『花郎』에서 나온것이라 생각한다。『花郎』은 近世에와서 『화랑이』로 發音되야 男巫의 義에 쓰여젓다。그러나 『新郎』을 方言에『신랑』이라고 訛語하는것으로 미루어 『화랑』도 『화랑』乃至『화낭』으로 訛音될수 잇겟다。花郎道는 新羅代의 美風이엇스나、그後頹落되야 淫風을 띄여엇슬것은 想像하기어렵지안흔 일이다。따라서『화낭』이『花奔』의 義로 轉한것이라 생각한다。現行語의『화랑이』도『男巫』란 意味外에 例컨댄 衣服가튼것이 너무나 繁雜하고 眩爛한者、眩亂者에게 쓰여지는것이다。

### 함씨

近代에 刊行된 文獻、例컨댄 樂書에는『함씨』란 말이잇고、對話에도 종종 일부러『함께』라고 發音하는이가잇다。이말의由來는 무엇이며 또 그것이 正當한가。

『함께』는 毋論 『한쁴』가 訛傳되것이며、嚴密히 말하자면『한쁴』가 音轉하야 된말이다。

佛經諺解에 맛히『爾時』를『그쁴』로 譯하여잇슴은 누구나아는바이다。그러면『時』의 古訓은 精確히 무어인가。現行語에도 [illegible]『끼』라하엿다 或은『끼니』를[illegible]하자마는 字會에도『時』字의 訓은 『쁴니』로되어잇다。

> **漢詩募集**
> 題…白頭山
> 押…峯
> 限 九月末日
> (薄謝進呈)

歸路

## 中國古代劇의 斷片的考察 ③

金友琴

樂隊에잇서서는 樂工이란 專門職을置하야 그樂隊의組織과 舞隊의行列等을 指導하얏슴은 實로 그規模가周到하야 只今의吾人으로서는 想像조차못할바이다

同篇中에曰

『以六律、六同、五聲、八音、六舞大合樂、以致鬼神、示以和邦國、以諧萬民、以安賓客、以說遠人以作動物』

이라하엿다。

그러므로 樂工은 導樂을擔任하엿다 舞師는 導舞를擔當한것을보아 中國古代社會의 戲劇活動에對한 그規模의嚴肅하고 浩大한情況을 可히推想할수잇다。

### 司巫 男女巫

祭祀에對한研究에잇서 一種의 專門的歌舞를 爲職하야 娛神을 目的하는者가잇나니 即巫이다。說文解字에말하얏스되

『巫祝也、女能事無形而舞降神者也』

라하엿다。

宗敎的方面으로보아 巫의降神을 舞師와樂工에比較한다면 너머專門化되感이잇스나 戲劇的方面으로 探究하면 歌舞를專門으로하야써 巫事를行함은 即表演者의 雛形이라할수잇다。商書에曰

『恒舞於宮、酣歌於室、時謂巫風』이라하야 完全히 歌舞로娛樂을삼는 巫神時代가잇섯슴으로보아 또한 人間으로하야곰 娛樂時代로 變遷하얏슴이되여다。周禮中에 司巫之官이잇서 專히

『掌群巫之政令。若國大旱 則帥巫而舞雩。國有大烖、則帥巫而造巫恒、祭祀則共匰主及道布及蒩館。凡祭祀、守瘞凡喪事、掌巫降之禮』

라한것으로 보아 巫는 그時代에 重要한職務인것을 推測할수잇다。巫에는 男巫女巫의 區別이잇나니 楚語에『在男曰覡女曰巫』라하야 兩個不同한文字로 冠名하얏스나 周禮中에는 그런區別이업고 다만男巫女巫라하얏슴에 不過하다。

『男巫 掌望祀望衍授號。旁招以茅。冬堂贈無方無算。春招弭以除疾病』

『女巫、掌歲時祓除釁浴。旱暵則舞雩。若王后弔則與祝前』

이란것으로보아 그時代의巫는 鬼神과與通한 一種의神職가태여 王과 王后에 服侍하던 宮中專門的 職業인것이 分明할뿐아니라 巫의降神은 非常히 戲劇化하얏슴은 上述한바에依하야 推知할바이며 이런種類의 活動은 廟堂中에 만히 施行하엿고 또한 不祥한事情을 掌管하얏슴도 만히잇섯다。

人間이 安樂한동안에는 迷神함이 小하고 한번 災難이 臨頭할時에는 鬼神에 信仰함이 多하다。巫도 人間이라 그무어이 鬼神相通이라하야 狂歌亂舞로써 侍扮하야 人間의 吉福의 祈求를滿足케할수잇슬까? 現在中國鄕村間에『跳神底』는『난신』或은『瞧香底』니『좌상되』或은『巫婆』는『우떠』라稱하는 女巫가盛行함을 目擊한다。鄕間百姓의게 災難이잇스면 前記女巫를請하야 奇怪한巫衣를 입고 神前에 燒香祈禱하며 狂歌亂舞一陣後에 神의臨降이라하야 駭怪한動作의 表演으로所謂 神奇한表示로 大言하되

『我乃……大神……大仙也…我來自……我知道……你們應即…不然將……吾神去也』

筆者譯『나는 나는大神이고 大仙이라 내이곳에온것은 내가아나니 너의들은 服從하면 所謂成就케하고 그러치안흐면 장차神은간다』

以上과가티 表示하는것은 朝鮮巫女의行動과 秋毫毛도差違가업다。그들은 全혀虛僞的表演과 自作的宣言에不過하나 그動作에 잇서 維妙維肖함은 鬼神의信奉이라하야 人間으로서는 아지못하는것이라고 主張한다。

이것이 곳上古時代의 巫이다。巫에對한行爲를探究함에 吾人은 巫로하야곰 神權統下의 表演雛形으로 看做하더라도 無理한일은아니다。

##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選外佳作一

市內阿峴町 雲樵 權承默

方塘秋水尺餘深
碧傘亭亭照境心
凉語爭鳴疎雨滴
嬌容解笑淺暉沉
莫敎漁子輕搖棹
却怕歌娥謾墮簪
淸淨知爲君子愛
濂翁去後有誰尋

##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 白頭山에잇는 昆蟲의分布狀態 ②

金秉河

白頭山은 寒帶地方이다 南方따뜻한 濟州島漢拏山잇는 蝴蝶과 大部分이 正反對的으로 種類라든가 體形이라든지 모든것이相異하다고 볼수잇는데 鳳蝶을 살피어보면 濟州島에는 體形이 大形으로 그體色도 美麗한것이 만흐나 白頭山에잇서서는 이와反對로 體形이、小形이지만 기탁하게 美麗한것이잇는것이다。

白頭山은 우에서 말한바와如히 大森林地이라는것이 原因도되겟지만 昆虫들의 敵이되는鳥類가거진업다고 하겟다 따라서大動物도 極少하니만큼 그들의生命만은 늘安全한 狀態를 繼續할수잇는同時 外的迫害를 바다 맛보지 못하엿음으로 恐怖心과 卑怯도 全然 가지고 잇습니다가 萬無이고 모든가 自己들과가튼 歡喜와 純情속에 生活을 하여나아갈수잇는 世上가티 여길는지 몰으겟지만은 白頭山의 森林地帶만 떠난다면 壓迫、慘殺、弱肉强食이 얼크러진 生物界! 이무삼 모롱이난 矛盾된 틈거지일고?

이제 白頭山의 大動物分布를 들추어보면 哺乳類로써 朝鮮熊을 비롯하야 群集生活하는 赤狼들과 土豹와 山兎、及 滿洲鹿이 散在하여 잇슬뿐이다。鳥類에 잇서서도 겨우 十四五種에 지나지못하니 朝鮮産鳥類二百餘種에 比較하야 十六分之一의 種類가 잇슬뿐이다。

그럼으로 白頭山産 蝴蝶들은 大槪가 强者에게 生命을 빼아기는바 적음으로 自由로 平安히 살持期限까지 自己生命 維持하야 아갈수가 잇는때문에 그것들에게는 何等의 刺戟이 업시 食物이 豊富하고 隱處가 廣大하야 生存競爭이 激烈한 現下生物界에 잇서서 每日가티 땀을 爲하야 必死的으로 努力할 必要도 업고 오즉 自己마음껏 잘 먹고 잘사는것이 그것들의 所望의 道라고 할수잇다。

그러면 그들의 唯一한 希望은 果然무엇이런가? 이地球上에 分布되어잇는 昆虫들이 自己들과가튼 深山幽谷에서 安全한 生活을 하는줄 알겟지만 조그마한 昆虫界도 그러치못함에는 그엇지하겟는가? 人間이나 昆虫이나 自己環境을 本位로하여가지고 그릇된 行動을하는者 不知其數이다。

昆虫가운데도 그날그날의 胃腸을 채울팡조각업는 貧窮한者는 自己生命을 니어나아갈 땅을求하기爲하야 주린배를 부등켜쥐고 彷徨하는 反面에 生活에 安定늘엇고 居處의 不安을 맛보지못하는 者들은 무엇보다 머리가운데 空想의 첫발거름은 남으죽거나 말거나 오즉 愛慾的이오 淫蕩한 生活을 憧憬하는것이다。

高山植物이 욱어진 花園蜂蜜에는 蝴蝶들이 이꼿에서 저꼿으로 가벼웁게 삽분삽분날어다니매 高山植物의 香氣잇고 아름다운 花蜜을 吸食하는것을볼수가잇나니 이는異花의 交配媒介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꼿에對하야는 少毫만치도 害롭주지안흔다시 말하자면 植物의 恩人이라고도 말할수 잇는 이것이다。

利害打算이 빠른 人間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할지언정 事實그들 內面을 벌커뒤집어 쏘다노코 말하자면 花園에서 徘徊하는것이 愛慾的手段에서 나온 淫蕩的行動이라고 볼수가 잇다。

무엇보다 그들은 배불리 먹어겟다 그럼으로 生物의 最大目的인 子孫繁殖에만 努力하게 되는것으로 子孫을 製造하자면 單獨自己一身으로 떠덩이 비지듯 만들수는 업는故로 雌雄이 對立되어잇느니만큼 自己個體의 一部細胞로써 子孫製造上 極必要한 原料를 共同的出資로 되느니만큼 共同出資할 公募株主를 求하여야만 萬事는 解決되는것이다。여기서 世上이 머리 쌀압호게 떠드니 所謂 戀愛라는 엉뚱한 條件이 생기어나오게 되는바 아무리로는 英雄的氣勢가 잇고 超越的精神이 잇다하드래도 外部的으로 觀察하기에 醜穢하고 깨끗지못한 印象을 준다는것은 戀愛라는『저울』에 다라노코 볼때 未安千萬이나 失戀이라는 非運의 추가 올니가는것은 그들이 敎育的 常識을 배우지못하엿다 하드래도 自然本能的으로 잘알고 잇는것이다。

그럼으로 內臟에는 凶測한 心思를 가지고 잇다。하드래도 外貌를 程度에 지나치도록 粧飾하고 擾亂스럽게꾸미는것이 요새떠드는 流行語로 所謂『초에이』가 失戀의 쓰라린 傷處를 當하지안코 OK의奇奇妙妙한 魅力을 가지고잇는것이다

꼼보 깨테기는 粉으로 곱게 밀어발으면 얼든보기에는 美人되고 衣裝도 될수잇는대로 호들하고色化이 유달리 뛰어난다면 仙女갓고 惡臭나는 몸에다 香水를덧는다면뒤라서 誘引안되겟다 장담하겟는가? 건달紳士도 훌융한衣服에는 女性이딸음이 人間世上만이 그런것은아니라하겟다。

## 讀者社交室

▲平壤PSS生에게答함 社交室을通해물으신 詩人여러분中 趙碧岩(重治)氏는 和信平壤配給所 李燦氏는 咸南北靑邑 文化株式會社에 勤務하오니 그리아시압

咸南甲山邑 朴明哲

▲저는二十三歲의女子이온바 最初結婚에 失敗하고 獨身生活을 합니다 學識으로는 普校三年까지 단엿스며 切實히사랑하야주는人士가기시면 一身을依託코저합니다 年令三十五歲以內性質溫順하고 理解性豊富하며 本要로入籍하여주실분에 限하오니 本社交室을通하와 알녀주시면 直接交涉하겟습니다

(大邱新町李求婚女)

▲에쓰페란토를研究하시는 諸兄들과의文通을熱望함

咸南咸州郡雲南面龍興里 魏洛煥方 李鉉璘

▲讀者諸氏의 錦安을遙祝耳로소이다 形使上上京하야 歲月을 보낼야하압나이다 學力은普校出身이요 나희는열아홉이나 早達하엿습니다 宿食이나 希望코辯護士或其他에서 書記助力又는店員等을 希望합니다 한번불러봄시요 곳가겟습니다

通川邑內 KTS

▲東京게신 金錫祐君께!君! 其後兄體健康하신지요 橫須賀에서 東京으로轉居한다는 葉書는 바덧스나 其後東京에서의 消息이엇스니 답답하오! 이글을보면速히現住所를 通知하여주게 讀者諸兄께서 金君의住所를 아시는분이게시면 左記住所로 알려주셧스면 千萬感謝하겟습니다

咸南鎭興 李 鎬

▲生이 本報連載中인 愛慾의彼岸을 오려서모으는대 次記日字의本報가업스니 어느분이든지 가지신분이게시면 左記住所로 送付하야주시면 感謝의表로 朝光九月號一冊送付하겟습니다

八月二、一三、一四、一八、二○、二五、二八、三一

慶北永川邑內朝鮮日報支局內 朱錫鳳

▲本人이早稻田中學講義錄中古品 商業講義錄中古品 井上英語講義錄中古品을購入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즉접本人에게 通知하여주시옵소서

忠南 禮山本町通 金大渭白

▲市內在住者讀者에게 一言을 합。아모되옹이나 感은 하一모니카나 謠譜力만이라도 有하신분은 生과 親睦을圖謀합시다。

積善町 西鮮旅館內 金碧波

▲滿天下讀者여러분安寧하옵심을仰祝하나이다 讀者여러분中에 井上英語講義錄全部(第一號부터第三十六號)를買受코저하오니 누구시든지讓渡하실분은 左記住所로든지 社交室을通하시든지讓渡金額과 其他仔細히알여주십시요

神戶市林田區菅原通七丁目一六五 本田正夫方 金光現

## 新刊紹介

▲靑年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三八番 定價十錢

▲가톨릭소식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番 定價五錢

▲女性展望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麴町二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 振替東京七○三八三番 定價十錢

▲調査月報 八月號(內容)昭和十年國勢調査府邑面別內鮮外國人의人國槪數 未生産價額調 豆類生産價額調 等其他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番


# 絢爛한天分의爭霸戰
# 全朝鮮音樂懸賞演奏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海棠花(女)「수—만」 一、넘은 나의安息(男)「슈벨드」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絶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産—大販—市價의半額

定價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靑年訓鍊總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底—總革學生靴 二個年以上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 フレンチ型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革靴大爆發的 大景品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短型靴 四圓五十錢

深型靴 五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二四(振替名古屋一七六)

連載野談

# 布表記 (三)

(不許轉載上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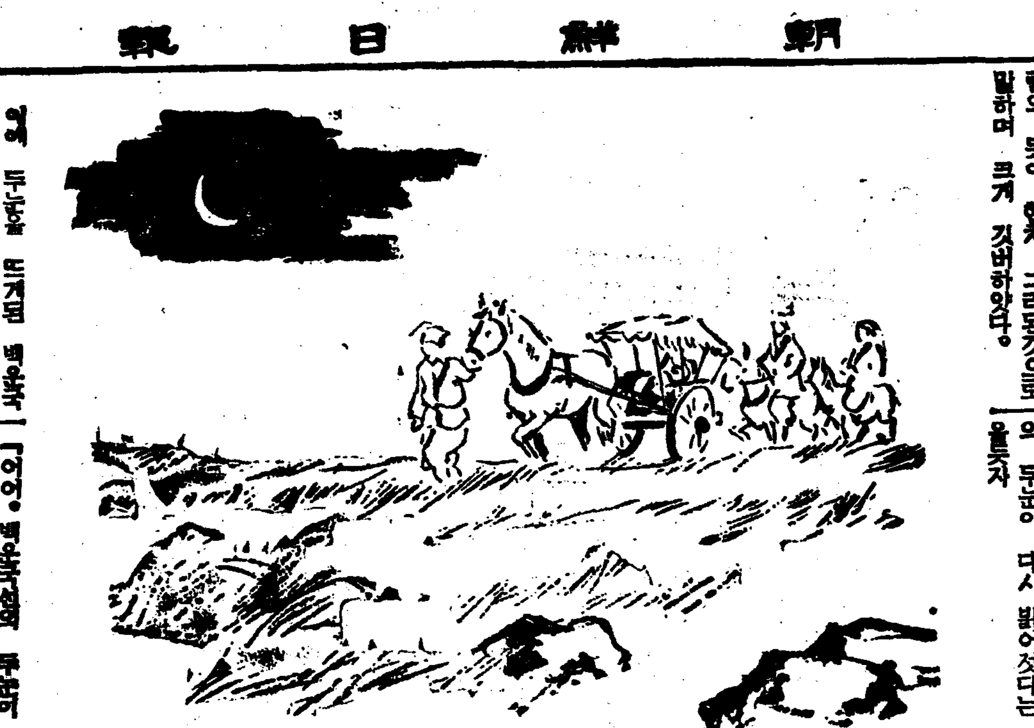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선의잇는편에 (三三)

백운국선이 그글로 두눈흣지섯것 씻기를 얼마동안하엿다。 즉 물을 떠서 씻슬사록 눈압에 한긔운이 떠돌다가 별갓그처럼 하얏케 끼엿든 백태가 다 버서지고 전날과가티 두눈에 광채가 떠돌앗다。

「과연 신긔한일!。내가 이곳에와서 천지만물을 다시보게될줄이야 어찌 꿈에인들 생각하얏스랴。 죽엇든 목숨이 다시 살어나고 멀엇든 두눈이 다시밝게된것이 이어찌 천하에 흔한일일고。이것은 분명 이산의 신령님이 도으시고 제후소저와 김천의 정성덕인것。」

하며 백운국선은 천지만물을다시 보게된것이 모두 귀신과사람의 뜻이 한께 그러된것으로 말하며 크게 깃버하얏다。



이에 두눈을 뜨게된 백운국선의 깃붐도 깃붐이려니와 제후소저와 김천이가 오히려 백운국선 보담 더깃버 날뛰기를 마지 아니하얏다。

백운국선은 두눈이 다시 밝게되니 천하에 무서운것이 업고 끄릴것이 업섯다。

그리하야 곳 그산중나와 다시 말과 수레를 구처하야 제후소저는 수레를 태우고 백운국선과 김천은 말을 타고 서울을 향하야 떠낫다。

이때 제후소저의 집에서는제후소저가 도망하얏다는 소식을 들은후 크게 놀내어 곳 하인을 풀어 리교평과 힘을 합하야 사방으로 차젓다。

그러나 기픈산중에 기피 잠겨잇는몸을 어이 알리!

「오오。이자식이 필경 백운국선과 도망한것이 분명하렷다。두눈이 부여케 먼 백운국선을 실타아니하고 갓치도망한바에야 그뜻을 어이막으리。그러커늘 제의향을 빼스러든 내가 오히려 붓그려운일。」

하며 제후소저의 부모는 제후소저가 분명 백운국선과 도망한줄을 짐작하고 귀왕 그리된일이니 다른 별고나업서지 잘서는、소식이나 듯기를 축수하얏다。

그런데 뜻밧게 백운국선의일행이 서울에 들어서며 백운국선과 김천은 백운국선 본가로 들어가고 제후소저는 제후소저의 뒤뜰로 들어섯다。

이에 제후소저는 그부모압해 나아가 두번 절하고 업드리여

「백운국선과 첫언약을 직히기 위하야 부득이 도망질한것으로써 부모의 예를 배운것은 불승 용당 죄교령에게 무안하입을 당하섯슬것이 모두이 불효녀의 죄이압거니 죽여지이다。」

하고 늣겨울며 무진아문에서 도망하든말。산중에서 도적을만나 죽게되엿든말。김천의 힘으로 그 도적의떼를 물리치든말。백운국선을 살리든말。백운국선의 두눈이 다시 밝어진말을 저저히 설명하얏다。

제후소저의 부모는 제후소저의 설명을 처음들음새 눈물을 금치못하다가 뭇중으로 백운국선의 두눈이 다시 밝어젓다는 말을듯자

「어어·백운국선의 두눈이 다시 밝어?。」

하고 크게 놀내고 깃버하며 제후소저의 부친은 곳 백운국선의 집으로 달려갓다。

이때 백운국선의 부친도 백운국선이 밝은 눈으로 도라온것을 크게 깃버하야 원 집안이 깃분 우숨으로 가득차게되엿다。

제후소저의 부친이 백운국선의 부친에게 대하야 지극히 붓으러운 얼굴로써 전일을 사죄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백운국선의등을 어루 만지며 늣겨울엇다。

그두 늙은재상이 오래간만에 만나 옛일을 이야기하며 백운국선과 제후소저의 대례를 거행할것을 다시금 의론하얏다。

택일후 김천을 맛하야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 륙례를 갓추어 천안할새 그소식이 경성에 져하며 모두 괴이하게 생각하야 숨어리길을행하다 생각하지아니하고 얼보례 구경차로오는 사람이 구름가티 모여다。

백운국선과 제후소저의 소문이 조정에 들리자

「허허。제후의 신의는 만고에 드믄일。백운의 두눈이 다시 밝은것도 분명코 제후의 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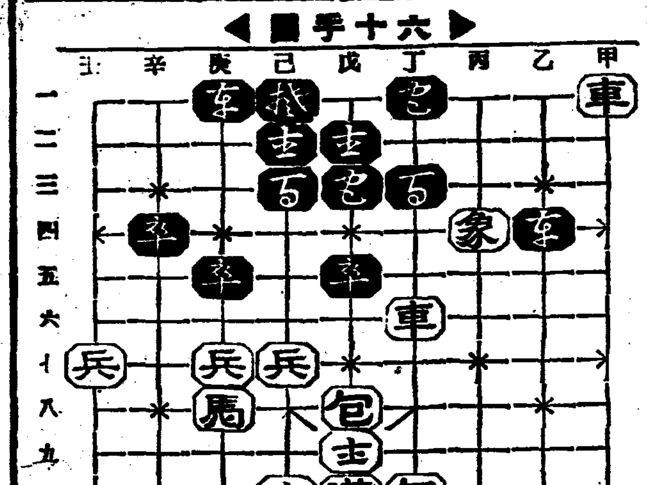
하시며 왕께서는 크게 괴이하게 생각하사 곳 백운국선은 무진태수를 봉하시고 제후소저는 의렬부인(義烈夫人)을 봉하시고 김천은 무진정(茂榛停)을 삼으사 그괴이한 일을 괴렴케하섯다。

이에 백운국선과 김천이 사은숙배(謝恩肅拜)후에 제후소저는 태수의 내행긔구를 갓추어 무진을 향하야 떠남새 지실노 옛일이 새로웟다。(이편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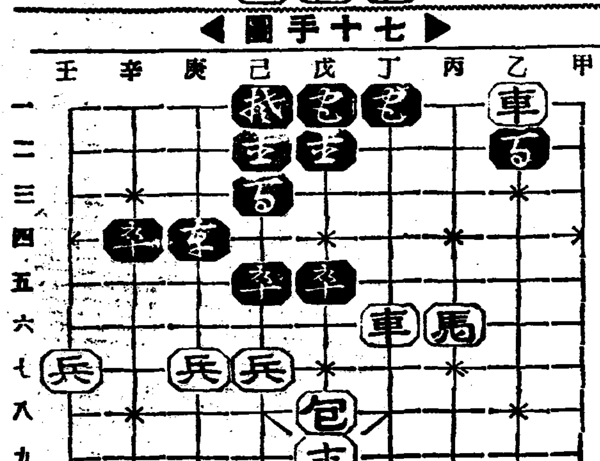
##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黑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十六手圖▶



◀十七手圖▶



丁三包—乙三
甲一車—乙一
庚一馬—庚三
丙四象—甲七
戊三卒—戊一

庚六馬—戊七
庚五包—己五
戊七馬—丙六
乙四包—乙十
甲七象—丙十

## 라디오

### 十一日 (金曜)

◇午後六時 吹奏樂 中東學校樂隊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科學講演 宇宙의神秘密(스펙트럼) 沈亨弼
◇同七時三〇分 講演『自己生活과社會對責任』 李克魯
◇同八時 (東) 室內樂 絃樂四重奏曲 作品四一第一番A短調 슈ー만作曲 第一樂章 인트로덕치오-네、안단테、에스프레시보알레그로 第二樂章 스케르쏘、프레스토 第三樂章 아다지오 第四樂章 프레스토 프레스토 모기레프스키ー 콰르테트
◇同八時二五分 古談「積善餘慶」 張志浩
◇同九時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달거리 四、제비가 趙牧丹 金眞紅

### 十二日 (土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三絃도도리 二、打令 三、吹打 四、길軍樂 五、멋다령 六、淸風明月 七、자진난봉가 細笛 婁能深 大笒 李忠善 奚琴 金奉業 杖鼓 金仁昊
◇同六時 橫笛獨奏 一、소등글이 二、가을밤 三、雨中의달 四、아침 五、모래山 六、봄새 七、카나리아 八、홈스위ー트홈 鄭德洪 피아노獨奏 金吉洪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乃木大將을追慕하야』 愍化公普 安興奎
◇同七時〇〇分 뉴ー스·天氣豫報 職業紹介
◇同七時三〇分 週間時事『噴火口上에잇는歐洲政局』 國際通信社 遼成烈
◇同八時〇〇分 새타령 一、새타령 二、새타령 三、大宇네이 四、興打令 金鍾守 吳翠 ○撤
◇同八時三十分 漫談 "九死一生" 黃材景
◇同九時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中擧 三、半葉四編 崔明洙 洋琴 安相春 金相淳 金紅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 (東速成獨語) 講座(二十二) 管張信一郎
◇午後〇時五分 (東) 野球實況
◇同六時 (東) 이야기 福岡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十五分 講演 肥塚正太
◇同七時三十分 (東) 舞臺劇 歌舞伎座서中繼 中村梅玉外
◇同八時三十分 (東) 黑川能 上野舟宮 劍持三近外
◇同九時 時事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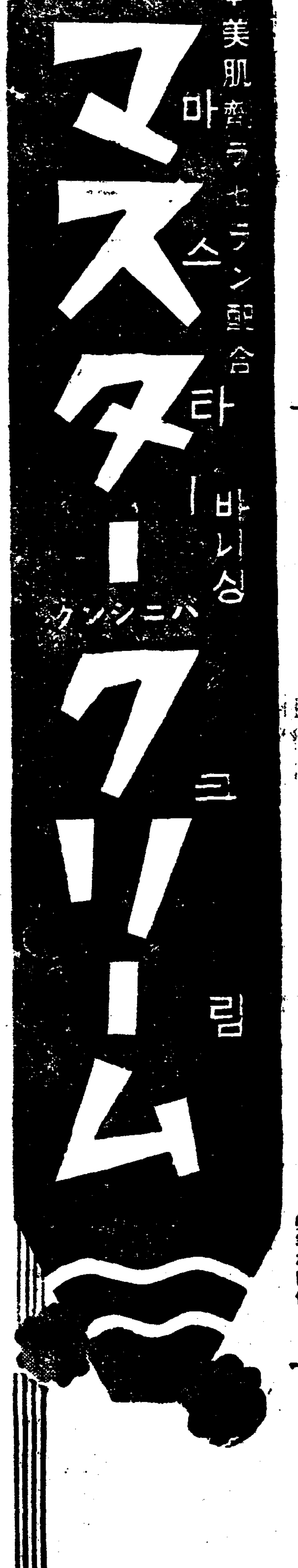
### 十三日 (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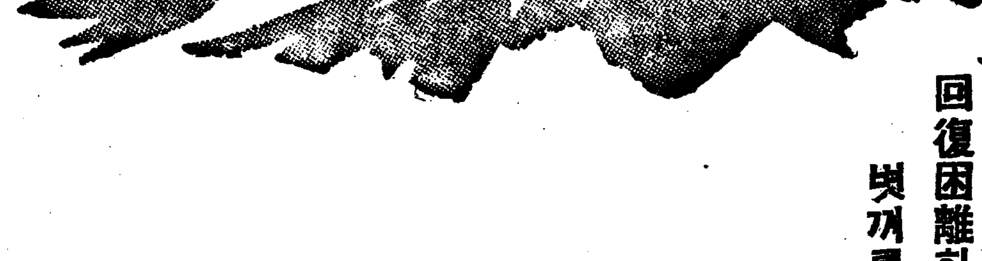
◇午後六時 이야기 李淙善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金顯大
◇同七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카메라、소나라…빨렌티네 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소스테누ー토 알레그로、빠빠ー제 第二樂章 알레그로 第三樂章 렌토、소스테누ー토 第四樂章 알레그로 쥬스토 二、크레모나의빠이올린製作者…후ー바이作曲 三、西班牙舞曲…그라나도스作曲 四、알레그로…피오코作曲 洪志裕 피아노伴奏 金元福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獄中歌 柳大福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압산打令外 一、압산打令 二、뒷산打令 三、경발념 四、山念佛 五、자진난봉가 六、바연폭포 金逸彩 任彩淳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1新京으로부터1 講演"滿洲事變五週年을마지하야" 新京朝鮮人民會 朴準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田中的
◇同一〇時四〇分 講演 林繁三郎
◇同一一時一〇分 同 小笠原省三
◇午後六時 (東)이야기 山本速一
◇同七時三〇 (東)新講談 伊藤痴遊
◇同八時一〇分 (東)吹奏樂 陸軍戶山軍樂隊
◇同八時三五分 (東)詩吟 高階哲夫
◇同八時五五 (東)浪花節 本家樂燕
◇同一時 (滿洲) 朝滿交換放送 (滿洲세부터)


# 悪質日ヤケを起す過剰皮脂



小麥色의볏꺼름은健康的이고 近代感覺에맛처하는것이지만 過剩한皮脂를處理식히지안코 볏꺼름그대로가을이와도살결은美白으로도라오지안코深刻한볏꺼름이됩니다

## 秋季

美容上가장煩憫하는것은旺盛한 皮脂의分泌입니다 이것은免할수업는自然的인 現象으로 苦心한化粧도곳기름끼가도라서 憂鬱하게됩니다、그런데過剩한皮脂를處理치아니한그대로볏꺼름이생기면 回復困難한部分的인 볏꺼름을어르키는것인故로이 對策으로서는 過剩한皮脂만을吸收調節하는微妙한作用이잇는貴重原料를配給한마스타ー홈팩트와 粉白粉의使用이夏季美容常識이되엿습니다

## 驚異的 性能의 活性白味劑

過剩한皮脂만을吸收하는驚異的性能의活性白味劑는巧妙한方法으로마스타ー홈팩트와粉白粉의複合粒子에써서配合한것이잇스므로그作用이緩和하고繼續的이므로 어떤살결의性質인분에게도 效果的이고

기름끼업는淸新化粧이오래가므로惡質의 볏꺼름을防止

하는等女性께一大福音으로서絕讚되여잇습니다、

化粧의모ー드

## 二重化粧色

二重色化粧은얼골에두가지色을나타내므로아주魅力的이고活性特殊白味劑와紫外線을吸收치안는優秀色素를配合한홈팩트와오ー콜마스타ー를使用하는化粧이므로 惡質인볏꺼름을防止하고거름꺼가들지안는特徵이잇고 살결의汚濁을除去하는데理想的인粘稠度로만드러진마스타ー콜드를발라서마스타ー一番化粧液이던가三十番이던가를脫脂綿에발라서씨서버립니다 다음에는오ー콜마스타ー를손끄테발라서 잘문질러바르고눈입이마의周圍를가볍게문질릅니다이번은홈팩트의카캬오色을누르는듯이문질르고 연지 입술연지眉墨으로끄틀내면立體的인二重化粧이됩니다

## 산뜻하고 榮養이되는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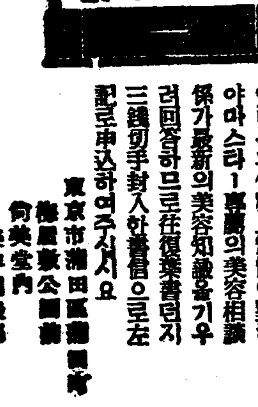
산뜻한바니싱크림이라도손바닥에문질러서보면크림分의一部分만이피는것은酸化度의不適當한境遇가만코이러한크림은不均等하게무더서 살결의一部分만을두렵게더프므로皮脂腺의分泌作用을妨害하야

▲化粧이밀리는原因 이되고
▲여드름·부름
▲잔주름·弛緩

의原因이되고살결의彈力을어러버립니다、西澤理學博士의苦心하는最適의酸化狀態…그리고皮膚醫學의大家를驚嘆식힙니다

마스타ー바니싱은

산뜻하게살결에녹아드러어크림에包含한皮膚深部에滲透力의强力한基本美肌劑스킨호루몬性라세량의効用으로皮膚細胞에榮養力을補給하고深部의老廢物을巧妙히排泄하므로地肌의活力을育成하는것입니다




여러분의化粧上煩憫에對하야마스타ー專屬의美容相談係가最新의美容知識을기우려回答하므로往復葉書던지三錢切手封入한書信으로左記로申込하여주시시요
東京市神田區錦町 梅屋敷公園前 何美堂內 美容相談係

## 過剩皮脂를調節하고惡質볏꺼름을防止!

# マスターホームパクト

마스타ー홈팩트

# 慶北道風水害決算 死傷者一千餘名

## 總被害額이三千餘萬圓突破 要救急이一萬二千戶

【大邱】이번 경북도(慶北道)내의 풍수해에대한 도지방과에서 총집계한 숫자에 의하면 사망자가 오백이명인데 그중에김천(金泉)이백륙명이 수위이고 그다음 성주(星州)일백십륙명 영주(榮州)삼십칠명 봉화(奉化)삼십삼명 예천(醴泉)삼십삼명 상주(尙州)이십륙명이고 부상자총수가 오백칠십이명에 달하야사상자(死傷者)합계가 일천팔십사명이라한다。가옥도는건물의 류실이 이천백삼십팔호이고 전괴가 륙천륙백삼십칠호 반괴가 륙천륙백십칠호 침수가옥이 일만칠천십호 이라한다 그리고 제일 이차풍수해총피해액이 삼천일백칠십오만 삼천이백팔십칠원이라는데방금긴급을요하는 리재민이 일만이천 일백오십칠호인바 금후구제대책이가장큰문제라고한다。이제제일이차풍수해 피해세별을보면다음과같다

第一二次風水害被害表 第一次水害 第二次風水害

| | | | |
|---|---|---|---|
| 家屋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船舶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家財商品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家畜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道路橋梁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河川港灣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工作物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農作物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耕地流失埋沒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總計 | [illegible] | | |

# 災地高城의被害 四百三十餘萬圓

## 農作物은八割以上의減收로 過冬之策이全然업서

【高城】사정업는 풍우로 일조에 폐허가된 재해지 고성(高城)의 피해총액은 사백삼십여만원을 돌파하거니와 농작물은 팔할이상의 감수를 보게되엿다하니 주택과 이복이업는 리재민의 대다수가 농민인바 설상가상으로 금후의 생활책이 막연케되엿스니 목하의현상도 비절참절하거니와 오는장래를 엇지할것인가 재해지 동포들의 정경은 참아눈뜨고볼수업다고한다

◇農作物被害

一、畓作
流失 八八五反
埋沒 三六三八反
浸水 一七五〇七反
右被害豫想額 三四〇、五二九圓

一、田作
流失 二一六反
埋沒 五一五七反
浸水 一〇七〇七反
右被害豫想額 一四二、五二三圓

一、工作物
被害豫想額 三〇〇〇、〇〇〇圓

## 漆谷郡風水害 被害額百餘萬圓 人畜被害만은僅少

【倭館】유사이래 초유의풍수해로 락동강을 끼고잇는 칠곡(漆谷)군은 그피해액이 놀나운수자를보이고잇스나 인명의피해는수방단 경찰서 주재소 군청 면사무소등이 희생적 활동을한결과 물귀사자들과 상한자 수를아홉명만내여 그인명구조의 미담이만호며 가옥의피해도 극소하나밀어닥치는 불가항력의홍수와 태풍으로 가옥(家屋)경작지(耕作地)농작물(農作物)공작물(工作物)의 피해가 막대하다는데 그것을 대략 면별로보면 가옥은 왜관、약목、북삼、석적、가산(倭館、若木、北三、石積、架山)이 제일피해가만코 경작지급농작물 피해는 약목、가산、왜관、석적 북삼면등이 제일우심하며 공작물피해는 가산、약목、왜관이가장심하다는데 각종별 통계는다음과갓다

耕地被害 八三萬圓
農作被害 七〇萬圓
工作被害 二萬圓
家屋被害 二萬圓
其他 十三萬圓
合計 一七〇萬圓

## 龜城普天敎全滅

【龜城】흑세무민의사교 보천교는 일시 전성시대를극하여 귀성군내에도 이백여명이란 만흔교도가잇서 시대의역행 민중에게괴만적사도를 널리선전하고잇드니 금번당국의 획시기적탄압과 취체에의하여 전조선적으로 이사교가 붕괴되는 최후의운명에 봉착한 귀성보천교도도 수일전 간판을귀성경찰서에 바치는동시 이후절대로 그런사교에 들지안켓다는것을 맹서하고 전부해체하여버려서 귀성보천교는 전멸되고마럿다한다

## 人類愛의發露 洋服寄托 루스끼우氏特志

【城津】금번 전고미증유의 그풍수해로 백만동포가 사선에서 방황하고잇는 저-삼남일대의비보는 눈물이아니고는 볼수업는사실이다 이를 구제하기위하야는 전조선 방방곡곡에서 활동이시작되엿거니와 외국인들까지 인류애의 눈물을금치못하야 지나간일에는 성진본정(城津本町)양복점주 로서아인(露西亞人)루스끼우씨는 적기와여히 양복류칠십오점을 본보성진지국에 자진기탁한바 잇섯는데 이에대하야 성진시민은 큰충동을 바덧다고한다

내역(洋服類)

一、防水布만토 六點
一、洋襪 十二足
一、小兒잠바ー 一點
一、學生服上下 二點
一、大人洋服上 一點
一、大人洋服下 一點
一、女兒세루洋服 一〇點
一、高級手套 一七點
一、革帶 三二點
一、小兒服 三點

## 二百의崇義校生 十圓十錢寄托

【沙里院】이번남선미증유의 대수해는 갈스록 이재동포의 그 비절한참상이 여일신문지상에발표되여 마음잇는사람으로하여금 누구나 눈물을 먹음게한다 여긔에 이재동포의 비참한 정경을 한상 걱정하고잇는 재령(載寧)북률면(北栗面) 숭의학교(崇義學校)당국자들은 이백여명의 학교아동들에게 그참상을 설명하야 아동들로부터 푼전을 모흔 정성의금 십원십전을 이재지에 보내달라고 본보북률지국에 기탁하야왓다

## 三南水害罹災民 救濟音樂大會 ─來十九日午後八時부터─ 平壤基督青年會主催

【平壤】평양긔독교청년회(Y·M·C·A)에서는 본사 평양지국후원으로 십구일 오후여덜시부터 백선행긔념관에서 삼남지방수해구제음악회(三南水害救濟音樂會)를 개최키로되엿다 이밤에 출연할 악사들은 사계의 권위자들을총망라햇고"프로그람"도풍부한바잇서 십이분의자신을가지고 주최를하게되엿슴으로 음악의 전당도 감상할겸 리재동포도 구제할겸 이야말로 겸사겸사하여 다수입장을 바라는터인데 『프로그람』은 추후 상세히발표키로되엿다

# 榮州郡內被害도 百萬圓臺를豫想 人畜死傷도五十餘件

【榮州】경북 영주군내(榮州郡內)풍수해는 지난일일까지 총계되엿는바 죽은사람이 사십명 가축페사 십삼두、농작물피해상액 무려백만원에 달한다

## 平北土木事業 工事順調로進捗

【新義州】금년도 평북도토목사업은 전후의 순조로 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여 년도내에는 완료되리라는데 이번과가티 순조로 진행되기는 평북으로서는 처음이라한다 공사비총액은오십삼만륙천륙백십팔원으로 내역을 보면 다음과갓다

地方振興 一二七、〇〇〇圓
災害復舊 七六、〇〇〇
國費復舊 一二八、〇〇〇
修繕費 六〇、〇〇〇
昨年繰越 一三一、六一八

# 端川戰友同盟事件 今明日間送局?

## 一時는五十餘名檢擧의大事件 起訴는十五名內外

【咸興】금년이월초순부터 약한달동안이나 빼처 단천경찰서(端川)가중심이되여 전단천군내에서 오십여명청년을 대량 검거하야당시에 세상의 이목을 놀내이게하든 세칭 단천전우동맹(端川戰友同盟)사건은 그후동서에류치하야두고 륙개월동안이나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고잇든바 요지음에 이르러서 겨우전반적취조를 끗마치고 일량일중에김귀윤(金璂潤)(二七)등 십오륙명을 치유법위반(治維法)출판법위반 등죄명으로 함흥법원 검사국에 넘길터이라고한다

이제사건의 대략을 소개하면 단천(端川)지방은 소화오년도부터 산림조합(森林組合)습격사건 제일이차 적색농조(赤色農組)등 사상사건이 꼬리를물고일어나 몃번의 대검거에 륙칠백명의 검거를 본사상적근원지로서 이러케 수차의 대검거를 지낸소화팔년도에 이르러서는 그러케도 왕성하든 적농(赤農)운동도 거이궤멸(潰滅)에 빠지게 되엿다 이러할때를 당하야 소화오년도에 검거되엿든 소위소요(騷擾)사건의 관계자김귀윤(金璂潤)(二七)등이 출옥하게되야 아직도 검거에 남겨잇든 최장환(崔長煥)(제삼차 적농수령)등과 기소중지(起訴中止)로피신하고잇든 동지들과서로손을마조잡고팔년오월중에 전우동맹(戰友同盟)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면(面)에지부 리(里)에 반(班)을 조직하기로 하고활동한결과 작년팔월까지 삼개면지부에 륙개리반(里班)까지 확립하기에 이르럿다 그리고 십일월칠일 로서아××기렴일(××記念日) 삼일기렴 그리고 단천농조(端川農組)공판기렴일에는 반듯이 격문(檄文)을 다수히 만들어서 반원(班員)과 일반에게 배부하야 공산주의의식을 고취시키기에 주력하다가 그와가티검거된것이라고한다

## 若木平野全滅 災民은極困境

【倭館】락동강연안에 유수한평야인 약목(若木)평야는 한발에 염려업시 벼는순조로 잘아서추수기만고대하고 농촌에는 희유의 풍년이엿다고 깃버하든것도 일조홍수로 황무지가튼 전답을보고서 긴한숨만쉬고잇는 처지인데 금번가티 참혹하게되든 원인은 어데잇는냐하면 약목평야부 즉 칠곡군약목면 덕산동(漆谷郡若木面德山洞)에 제방이잇서서 낙동강수의 범람을막엇는데 금번홍수에 떠붓는폭우에 수방단 지방민의 희생적노력도 고만수포가되여 홍수는 제방을문허치고 토지와 가옥농작물을쓰러간것이라하야 현재로보아서는 전연복구의 여망도업고 딸아서 약목평야일대에 사활문제가 되여서 수천호의농가는 기아에고생을하며 할수업시 보조만바래는 형편이라한다

## 救濟金品募集寄托 各町洞會員動員

【元山】모진수마(水魔)에 집과 가장소중물과 량식을일코 목숨만 겨우남어잇는 백만리재 동포를 구하고저 원산부민은 유일의구제금품을 내여 본사 원산지국에 기탁하여온다함은 루보하는바이어니와 지난오일에는 원산부해안통오、륙정목 정내조합(海岸通五、六丁目町內組合)한명옥(韓明玉)정곤택(鄭坤澤)정규호(丁奎鎬)외제씨는 비나리는것도 무릅쓰고 정내각호를 순방하야 의류와물품 팔십일점과 현금 십칠원이십전을 거더가지고와서 리재지에전달하야 달나고 의뢰하야왓스며 도한원산부 장촌동정내조합(場村洞町內組合)에서도총대황하룡(黃河龍)외 정내위원열한명이 총출동하야 동내각호를 도라단이며 의류와물품 백칠십일점 현금 팔원구십륙전을거더가지고 본사원산지국에 긔탁하야왓다

## 洛東江一川式에 住民怨聲藉藉

【釜山】금번 대풍수해로 말미아마 가장 만흔 희생을 당한 리재지(罹災地)는 락동강(洛東江)류역이라할은 그당시의 보도에 의하야 이미 다아는바인데 그리재지 특히 밀양(密陽)진주(晋州) 함안(咸安) 산청(山淸) 김해(金海) 귀포(龜浦)등지의 리재민들은 금번 수해는 소화팔、구량년도의 대홍수와함께 락동강일천식개수공사에 원인이 잇다고 단정하고 동일천식에대한 원성이 노파가고잇스며 그들은 이제 조손전래의 유일의 생명줄인 농토가 폐허로 도라가게되여서 살길을 일케되므로 당국의 선처를 절규하는동시 도당국과 총독부당국에 밀양군 삼랑진(三浪津)삼천여명리재민을 필두로 각처에서 대거진정을 기도하다가 경찰당국의 저지로 뜻을 일우지못하엿스며 기타지방에서도 혹은 전보로 혹은 서면으로 혹은 대표자를 경남도당국에 파견하야 선처를 요구하는중인데 도당국의 태도가 주목된다고한다。

## 衣類二千餘點과 現金이四百餘圓 安東支局員의活動募集

【安東縣】긔보=안동현본보지국에서는 남조선수재구제자선연극대회(南朝鮮水災救濟演劇大會)가 끗나자 연하야 지국원총출동과 안동로동조합(安東勞働組合)원일동의 후원을어더 가가호호를방문하야 의복을 거두는중인데 이미 모아노흔것이 이천여점이요 의연금(義捐金)합계가 사백여원이라는데 불일내 수금되는대로 의복(衣服)과가티 본사로 보내리라한다

## 直西里講習所 建築基地提供 崔仁彬氏特志

【永興】영흥군덕흥면직서리 리민유지제씨는 미취학아동을 위하야 작년도에 장학회(奬學會)를조직하고 지방진흥발전과 농촌부산아동을 교양시켜오든중 교실이 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야오든바 동리최인빈(崔仁彬)씨가 강습소교지로서 이백여평을 희사하자 건축비만 삼백원은 장학회에서 지출하고 재목부역은 리민이 부담하게하여 지난팔월말일까지 건축을 마추고 지난륙일에 동강습소강당에서 락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엿는데 일반은 유지의열성을 매우찬성한다고한다

### 地方人事

▲金勝鍊氏(東和醫院醫師)開業人事次本報咸興支局來訪
▲相良勝次氏(高城稅務署長)新任人事次本報高城支局來訪
▲李忠淳氏(安邊公立普通學校訓導)就任人事次本報安邊支局來訪
▲宋錫燮氏(中和面長)新任人事次本報中和支局來訪
▲永田德藏氏(朝鮮總督府黃海道警部補)延白警察署新任人事次本報延安支局來訪

◇取消=去九日附 本報朝刊第三面第一段에揭載된『水利防害事件、檢事現地臨檢』이란、記事內容은事實과 全部相違되옴기에 玆에 取消함

◇……海內外各地에서 水災同胞를爲하야 努力하는분들 (上右)大阪府下佃島町代表와 同朝鮮婦人會代表들 (上左) 同高麗會婦人會代表 (中) 同大正區高麗方面代表 (下) 沙里院記者團의 同情品募集活動光景

大邱
水害同情 權泰浩獨唱會
△時日 九月十五日午後八時
△場所 大邱公會堂
◇主催 朝鮮日報大邱支局

# 愛慾의彼岸 【98】

李光洙 作 金康穆 畵

갑작이 혜련의 몸은 빗속에 떳다。혜련의 얼굴은 금시비초로 빗낫다。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뜬 혜련의 모양!

해가 뜬것이다。준상은 잠깐 고개를 드러서 동쪽을 바라보앗다。거긔는 아까 잇던 붉은 구름들이 마치 장막을 거든드시 슬어지고 둥구럿한 붉은뎅어리만이 바다우에 나떳다。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로서 생각할수잇는 가장 큰불스뎅어리, 가장 뜨거운것!─그것은 지구상에 잇는모든것을 다 태어버릴수잇는 텬옹의 힘이다。지구 그물건이 그 속에 뛰어들어갈때에 그것은한 찰나 새에 까스가되어버리고 말것이다。까스이상으로 분해되어버릴는지도 모른다。그리고 그가발하는 엄청난 큰 빗! 해 자신도 우주의 무한에 비길 때에 창해일속이라고 천문학자가 가라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큰더움이오 비치오 힘이다。준상은 제 가슴속에 그태양을 집어삼키고시펏다。그리고 제 몸과 마음이 모도 그와 가티 열이되고 비치되고 힘이 되고시펏다。

바다도──그러케 다리미로 다린드시 고요하던바다도 늣길늣길 물ㅅ결이 일기 시작하엿다。준상의 발미테서도 적은 물ㅅ결들이 찰삭찰삭 연연한 소리를 내엇다。바람도 깨엇다。혜련의 치마폭이 팔랑거렷다。

준상은 그린드시 서잇섯다。천지는 경각간에 환해졋다。

혜련은 제사가 다 못난 제관모양으로 몸을 도리켯다。그 순간에 눈에 띄인 준상의 모양! 혜련은 그것이 강선생이나 아닌가, 하엿스나 곳 준상인것을 알앗다。

혜련은 어젯 저녁 여관에 들어서 숙박계를 할 때에, 강선생과 오빠가 그 전날 이 여관에서 자고 떠난것을 알앗다。그리고는 그 길로 온정리로 따라가고시펏다。그 숙박계책에는 두 사람이 다, 가는데를『내금강』이라고 하엿다。그러나 해금강에서 내금강으로 가는데는 두 코오쓰가 잇다。하나는 배천지, 개잿령, 유점사, 안무재를 거처서 가는길, 또 하나는 신계사, 비로봉을 거처서 가는길이엇다。오청령, 말휘리를 거치는코쓰가잇다하더라도 그 길로 갓을것갓지는 아니하엿다。어느코쓰로갓을까──혜련은 밤에 이것을 생각하며 잣다。

그리고 새벽 산보를 나올 때에 혜련은 강선생이 어느 길을 걸어올까, 어듸쯤에서 해뜨는것을 보섯을까, 하고 찻다가, 아마 이것이리라, 하고 끌른데가 그 바윗돌이엇다。

혜련은 그 바위에 올라서서새벽 바다를 바라보고 동정의명상에잠겨잇섯다。반드시 강선생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것만이 아닌것 가탓다。강선생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꼭 바르집어 말할수는 업는 무엇──그러나 아모리하여서라도 그것을 차자서 그 품에 안기지아니하고는 못견딜듯한 무엇──그러케도 그리운 무엇을 동경하는 심사엿다。이 세상에서는 차즐수업는 아름다운것, 밋븐것을 그리워하는 심사엿다。

저 끗간데를 모르는 바다와 하늘──그것도 이 그리움을 쌀수는 업는 것가탓다。

이 그리운 마음은 혜련을괴롭게하엿다。구해서 어더지지못할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티서, 더 살고십지아니한듯한 생각조차 잇섯다。

발미테 출렁거리는 길고 푸른물。그것은 원산 해안에서 보던 물과는 달랏다。말할수업시 맑고 깁고 신비한것 가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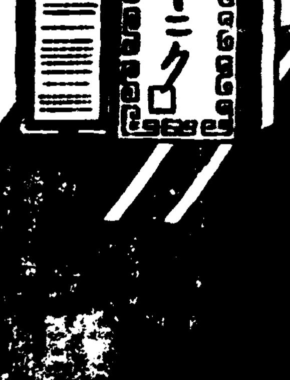
『이몸을 여긔서 던저버릴까』

혜련은 이러한생각을 햇다。

이세상에서 더 오래 산대자별로신통한 구석이 잇슬것갓지아니하엿다。

『강선생을 또한번 만나기로니 무엇하니?』

이러케 생각하면 혜련은 아모희망도 업는것가탓다。강선생이가 아니냐? 스승과 제자。은 혜련이가 사랑할수 업는사람이다。그것은 아버지와 딸! 이것은 조선에서는 허락되지아니하는 사랑이다。게다가 강선생께는 처자가 잇숩더이다! 그러타면? 『그러치만 내가 꼭 그어른의부가 되자는것인가』 하고혜련은 고개를 흔들어보앗다。

參茸トニク

人蔘、鹿茸、麋茸、主劑로 補血強精、生殖器衰弱、神經衰弱、男女老幼一般虛弱等에偉効가有함으로 醫藥界에絶讚을受함
醫學博士 諸博士實驗證明書及試供品進呈
五圓·二圓八十錢
慈善堂製藥株式會社 振替京城一九〇七番

肋膜炎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振替京城一二二九九番

好職業
福藥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農園·果樹園에 理想的인 驅虫劑 粉煙草
京城鍾路町二六五 今村洋行

옷감 韓青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本業에紙袋의製造를奬함 製造者募集
千代田本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朝報案內

恩給 朴商會

臨時社員採用
朝鮮企業株式會社

流行歌 알어달나우요 朴英鎬作詞 金松奎作曲 李蘭影 一九〇七
오케─레코─드 OKEH

京城鍾路二丁目 時計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京城橋南町電車停留場前 趙漢英小兒科 電光一九八七番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朝日軍手京城支店

直營支社長募集
有力한新進事業家大歡迎
固定月給金百圓給與
詳細規定請求次第郵送
京城府西大門入口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洋品雜貨 仕入은 文化商會로 卸問屋

# 佛蘭西經濟現狀

## ● 苦惱不去、法貨再動搖

블룸內閣의成立後 一時小康狀態이던 法貨는 最近에 또 動搖의兆를 示한다。佛政府財政의前途에對한 念慮로 法에對한 實物이 往入되기로 佛蘭西로부터 米國으로 金現送이開始되어 八月七日以來의 金現送은 三千二百萬弗에達하얏다

×

블룸內閣의任務는 우선國內財政經濟의危機를 打開함에잇섯다 新議會는 六月五日開會 八月十三日에 夏期休會에入하얏는데 此間成立한法案은 財政法案五、政治社會法案二〇、經濟法案十六、軍事法案六、行政法案六、其他八、合計六十一이다。그中블룸內閣이 財政經濟危機를 打開하기爲하야 採用한政策을 槪括하면 如左하다

一、勞働、社會立法

二、佛蘭西銀行의 大改革

三、軍需工業國有化

四、商工業、輸出業、農業에對한各種의 補助救濟

五、大規模의 救濟公共土木事業、三年間에 二百億法을 國庫及 中長期債의形式으로 支出하야 乾拓、農村電化、公共建築等을行함

六、穀物統制局의設置、이에依하야 穀物價格의保護、穀物

×

블룸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의 實効를 云云함은 勿論早計이나 今日까지의 政府의 危機打開에 對하야서는 相當한 成果가 잇섯다 政府는 金融危機에 對하야 緊急策으로서 우선 國外逃避資金 防止令을 定하고 또 國庫證券을 發行하야 資金의 補充을 計劃하얏스나 此等 緊急策은 모다別로조흔 成績을 示치안햇다

그뿐아니라 新財政經濟政策의 實施에는 안팟困難이 豫想된다 新勞働法의 成立에伴한 生產費의 增加는 商工業의 苦境에 拍車를 加하얏다 政府는 이것의 救濟를爲하야 商工業의 補助或은 輸出貿易의 振興에努力하얏는데 이는 反對로 生活費의 騰貴로되어 新勞働法의 效果에 減殺傾向을 가저다 또各種補助政策、公共事業의 實施、國家統制力의 强化에 伴하야 財政上의 負擔이 去益增大될것이다 更히西班牙內亂으로 國際政局의 緊迫하는 人民戰線의 內閣을 實하고 一方軍備充實의 形式으로 財政의 困窮을 倍加한다

×

人民戰線의 勝利와 共히勞働者는 政府가 自己의 生活條件改善에 努力키를 期待하고 政府는 이要求에 應하야 新勞働關係의 確立에 努力하여야할立場에잇섯다。六月七日에 調印되어 所謂 "마테이뇬協定"은 賃銀勞働者에게 對하야 如左한利益을 確保하얏다。

一、平均一割五分의賃銀增額

二、勞働組合主義의 承認

三、集團的契約制의 確立

四、工場代表의任命

이어서有給休暇、一週四十時間勞働、義務敎育의 十四歲까지 延長等이 立法化되어잇고또全國失業保險法案이 提出되어잇다 新勞働法에 依하야 勞働不安은 確實히 緩和되어잇다。그러나 國內經濟의不況進行에 伴하야 失業者는 實質的으로 增加되는中이다。또財政經濟政策의 實施는 各種의 物價騰貴抑制策의 採用에도 不拘코 物價及生活費의 騰貴를招來한다。政府는 大規模의土木事業을 計劃하얏스나 이것이 勞働者에 充分한 利益을 保障치안케되면 冬季의 接近과共히 再次勞働不安이 釀成되지안흐리라고할수업다。(계속)

# 九月上旬까지의 米移出新記錄

## 累計八百七十八萬八千九百石

## 但千萬石突破至難?

朝鮮米의 移出은 二、三月中은 極히 不振하다가 四、五月부터 米價高의 時期를타서 一時에 旺盛하야 今年은 移出一千萬石을 突破하리라는 觀測조차 可能케한바잇섯는데 九月上旬까지의 移出累計로보면 八百七十八萬八千九百五十八石으로 前年의 八百二十二萬一千餘石보다 五十六萬七千餘石의 增을 보앗다 米移出最高記錄인 昭和九年九百四十二萬餘石의 移出을보앗슬때의 八百三十六萬六千餘石의記錄을 突破하엿다 그리고 輸出까지合한 九月上旬까지의 累計는 八百八十三萬一千餘石에 達하엿다 現在까지의 移出狀況으로 보면 十月末까지 九百五十萬石內外로 千萬石을 突破치못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 ▲粟輸入續增

粟의 八月上旬輸入高는 二萬六千六百石으로 比前年同期四千餘石增이고 輸入累計는 百二十五萬五千石으로 比前年同期二十二萬餘石의 激增이엇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 | 輸出 今年 | 輸出 前年 | 移出 今年 | 移出 前年 | 合計 今年 | 合計 前年 |
|---|---|---|---|---|---|---|
| 上旬 | 六、八〇〇 | 三、一八二 | 一八二、〇四〇 | 二三二、八〇六 | 一八八、八四〇 | 二三五、九八八 |
| 十一月以降累計 | 四二、六二六 | 三九、八四四 | 八、七八八、九五八 | 八、二二一、三〇四 | 八、八三一、五八四 | 八、二六一、一四八 |

粟輸移入高 (單位石)

| | 輸入 今年 | 輸入 前年 | 移入 今年 | 移入 前年 | 合計 今年 | 合計 前年 |
|---|---|---|---|---|---|---|
| 上旬 | 一六 | 九 | 二六、九〇七 | 二二、九二五 | 二六、九二三 | 二二、九三四 |
| 十一月以降累計 | 七四〇 | 一、二五四 | 一、二五五、三九一 | 一、〇三三、三四一 | 一、二五六、一三一 | 一、〇三四、五九六 |

## 大麥과裸麥 移入激增

### 벌서前年分凌駕

粟과아울러 代用食으로서 最近數年來 重要地位를 占하고잇는 大麥、裸麥은 繼續하야 日本內地方面으로부터 連續移入되야 그數量은 八月末까지 五十一萬石價格七百六十五萬圓의 巨額을示하엿다 이제 累年移入을보면

| | 數量 | 價格 |
|---|---|---|
| 昭和九年 | 二九、九七九 | 三九二、五三七 |
| 同十年 | 四三九、五三五 | 六、五一五、三六八 |
| 同十一年 | 五一〇、五九八 | 七、六五〇、八六五 |

으로 九年에比하야 十年은 二十倍의 激增인데 다시 今年은 八月까지에 右移入額을 突破하얏스며 麥類消費의 激增을 注目된다고한다

## 滿鐵商事部獨立

### 一千萬圓會社로

【東京電話同盟】來十月一日부터 實施되는 滿鐵職制改革을 機會로 從來의 商事部를 獨立케하야 資本金一千萬圓(滿鐵六百萬圓、滿炭百萬圓出資)의 商事會社를 設立할案은 이미現地에서 靑木對滿事務局次長의 諒解를 得하얏슴으로 右正式認可及日本內地側關係者와 協議키爲하야 武部商事部長은 十日東京에 到着하얏다 同社는 新京에 本據를 置하고 當分撫順炭及 滿炭의 輸出을 主要業務로서 職制改革과同時에 創立될 豫定으로 近日中에 認可令이 發케되리라는데 社長에는 武部商事部長이 就任하리라한다

## 農務課長會議

米穀自治管理法施行에 伴한各道農務課長會議는 來十四日부터三日間에 亘하야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키로決定되엿다 同會議에는 道農務課長 米穀統制主任官等 五十餘名이 出席하야 自治法施行에伴한 諸問題를 協議한다고한다

## 南朝鮮秋繭出廻

### 卅掛維持나作況不良

朝鮮內秋繭은 全南、全北의早掃地方에서 出廻期에 入하얏는데 絲價의 高價維持로 掛目三十掛를 維持하고잇스나 過般의水害影響 그後의低溫으로 作況의不良은 難免하야 朝鮮內製絲는 또한 原料不足은 不可避하리라고보인다

## 公債增發難關

### 大野政務總監談

明年度豫算은 兩三日中에 綜合될터이나 計數整理를 終了하기는 中旬이 지나서일것이다 總額은 四億圓以上이다 나는中樞院會議、產業調查會의 關係上十月末이나 十一月初에 渡東하게되고 財務局長이 豫算案을 携行하야 拓務省과 折衝하게되엇다 公債發行에 對하야서는 依然 大藏省에 難關이잇서鐵道、港灣關係만에 그칠것이다 一般會計의 繰入問題도 今年은 水害도잇서 雙方모다讓步치안흐면안될것이다 于先補給助程度로되지안흘가한다

## 生蔘販賣會社創立을 統制會社側拒絕

### ◇……販賣量減下를理由로

【開城支局電報】人蔘의 商權을 擁護하는 目標下에 三百餘名耕作者들이모혀서 二百萬圓의 資本으로 生蔘統制會社를 組織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에對하야 百餘名通信販賣業者들은 五十萬圓資本의 販賣會社를 創立하고저 準備中으로 前記統制會社의 諒解를 求하엿든바 統制會社에서는 지난八日 이問題를 討議키爲하야 役員會를열고 協議한結果 이會社의 併立은 오히려 販賣量을 減下식히는 同時에 統制會社의 實力을 無力하게 만들念慮가잇다고하야 承認을 拒絕하기로 決定하엿다

# 大豆一割減?

## 粟은多少良好일듯

### 今年의雜穀作況打診

今年의 米作은 一般的으로不良이든中에 다시連二次의 大風水害로 嶺南北에도 各히 三割程度의 減收가 豫想되고잇고하야 다른方面의 農產物에도 影響이 不少하리라하야 農家의憂慮가깁흔데 雜穀中 主要한것으로 大豆、粟의 作況에 對하야 總督府의 豫想調查에 依하면 大豆가開花期의 降雨와浸水로 被害가잇서 昨年의 收穫二百八十萬二千餘石에 比하야約一割減이 豫想되고잇고 粟은 旱害로比較的良好하고 水害도 較少하여 比較的 被害가업서서 大體로는 昨年收穫 四百八十六萬餘石에比하야 多少의 增收를 보일豫想이라고한다

## 產業調查會

### 十月二十日開催

朝鮮產業經濟調查會는 知事會議其他諸會議의 關係로 多少延期되어 來十七日 池田委員會를 開催하고 會議日程을 詳細히 決定할터인데 大體 十月二十日부터 二十四日까지 五日間에 亘하야總督府 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日本內地 朝鮮財界의 權威를 網羅하야 新興朝鮮產業 今後의 動向에對하야 審議를 거듭하게되엇다

## 八月中의 會社移動

### 新設、解散頻繁

京城商工會議所調查 八月中 朝鮮內會社移動을보면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 | | 社數 | 公稱資本 | 拂込資本 |
|---|---|---|---|---|
| 新設 | 株式(本店) | 二 | 三〇、五〇〇 | 一〇、七六一 |
| | 同(支店) | 五 | 一、八〇〇 | 一、〇〇〇 |
| | 合資 | 二〇 | 三〇〇 | 三〇〇 |
| | 合名 | 八 | 一九九 | 一九九 |
| | 計 | 四一 | 三二、九〇〇 | 一二、二六〇 |
| 增資 | 株式(本店) | 三 | 三〇、三〇〇→五六 | 三〇、二〇〇 |
| | 合資 | | 三八六 | 三六四 |
| | 合名 | | 二〇 | 二〇 |
| | 計 | 一五 | 三〇、九〇六 | 三〇、五八四 |
| 減資 | 株式(本店) | 八 | 三、三四〇 | 三、三四〇 |
| | 株式(本店) | 二 | 一、五〇〇 | 一、〇〇〇 |
| 解散 | 株式(本店) | 二 | 九五 | 四五 |
| | 合資 | 六 | 六〇 | 六〇 |
| | 同(支店) | 一 | 一〇〇 | 一〇〇 |
| | 同 | | 三〇 | 三〇 |

# 重要商品界事情

## 世界紡績好調

### 錘數依然減退

萬國紡績聯合會의 一九三五—三六年度下期(今年二月—七月)의世界紡績棉花消費高 世界紡績棉花所持高와 世界紡績錘數는如左하다

一、棉花消費高는 前期에比하야 一千二百八十六萬三千俵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六十六萬二千俵가 增加되고 品種別로보면 埃及棉을除하고는 모다增加를示하얏다

一、棉花所持高는 四百四十六萬五千俵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九萬三千俵減少를示하고 今年度上期末(一月末)에比하면二千俵가增加되엇다 品種別로보면 米棉埃及棉의 所持는減少되고 印棉其他棉은增加되엇다

一、紡績錘數는依然減少傾向으로 一億五千百六十九萬八千錘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百八萬錘의 減少이엇다

◇世界紡績棉花消費高 (單位千俵)

| | 今年度下期 | 前年同期 |
|---|---|---|
| 米棉 | 六、〇八六 | 六、〇五九 |
| 印棉 | 二、八五六 | 二、八一〇 |
| 埃及棉 | 五六五 | 五五一 |
| 其他 | 三、三五六 | 三、四六六 |
| 合計 | 一二、八六三 | 一二、二〇一 |

◇世界紡績棉花所持高 (單位同上)

| | 今年七月末 | 前年同期 |
|---|---|---|
| 米棉 | 一、八二一 | 一、九五九 |
| 印棉 | 一、二九九 | 一、二五六 |
| 埃及棉 | 二二五 | 二二六 |
| 其他 | 一、二二六 | 一、一二三 |
| 合計 | 四、四六五 | 四、五五八 |

◇世界紡績總錘數 (單位千錘)

| | 今年七月末 | 前年同期 |
|---|---|---|
| | 一五一、六九八 | 一五三、七七八 |

【備考】棉花消費高와所持高는 伊太利의今年度下期數字에는 包含치안코 또前年同期數字에는 獨逸을合치안코 또前年同期數字에는 獨逸을包含치아니함

## 經濟寸鐵

○ 商工會議所 取引所制度調查委員會는 無期延期 되엇다고

○ 小川商相이 取引所 制度 改革을 그리 急速히 할뜻은 업다고

○ 電力國營이 電力統制로 變한前例도잇서 섯불리 取引所改革을 하다는 흉이될가 怯냄인가

○ 何如間 宿題로 내려오던 取引所改革이나 엇던지 急速히 해서 쓸데업는 不安을 一掃식히는 게若何?

## 經濟界消息

○土木協會廿日頃創立 社團法人朝鮮土木建築協會는 八日附設立認可되엇는데 十一日 午後三時廿分 伊達四雄氏가 入京하야 十二日 總督府關係當局과 常任理事詮衡 其他의 協議하고 二、三日內에 發起人會를 열고 今月二十日前後에 創立總會를 開催할 豫定이라고

| | | | |
|---|---|---|---|
| 合名 | | 二六 | 二二 |
| 計 | | 一五 | 一〇 |

本店新設中主要한것은 北海產業株式會社(群山)이오 解散은 大豆化學工業株式會社(咸南)이며 支店新設은 日本리-루販賣株式會社(京城) 日本鋼材株式會社(京城) 共同火災保險株式會社(京城)等이엇다

## 株式

### 鐘新、東新 爆發

商況 [十一日]

#### 前場反撥

取引所調查委員會 無期延期로 東新中心의 反撥好勢이엇스니 東新百二十五圓 大新六十七圓七十錢 日產八十一圓四十錢 日產新三十八圓九十錢 鐘新百七十六圓五十錢 朝新三十二圓十錢 拓新二十六圓三十錢에 一齊高

#### 實物前場取引

▲滿洲船渠 八〇〇 ▲에다따이新 三二〇 ▲京城電氣 一〇〇 ▲또리치鐵業 二〇〇 ▲三菱重工業 八〇〇 ▲新潟鐵工 一〇〇 ▲朝鮮製鍊 一四〇〇 ▲昭和人絹 三五〇 (取引高 一六〇〇枚)

#### 平南鐵道株公募

平南鐵道株式會社는 八日付設立認可되엇슴으로 十日 委員會를開催한結果 五萬株中 五千株를 公募하고 發起人引受로 하고 今月十七日부터 同十九日까지 申込를 受付하야 二十一日에 配定을하고 十月五日까지에 拂込를完了하야 十月二十四日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拂込은 十分의 一即株五圓이오 建設事項은 十月十五日에 測量을完了하고 設計後年末에 着工키로되엇다

## 紐育株式活況

八日의 紐育株式市場은 勞働祭休日도 이미 지나서 活潑한 秋景氣의 前途觀이 드듸어 濃厚하게되어 買物이 殺到하야 諸株는 一、三弗가량 奔騰하야 스틸은 休日前에 比하야 一弗八分의五 高를 演하야 七十三弗丁으로 春高價를 突破하고 一九三一年十一月以來의 高價를 示現한것이 不少하야 工業株三十種平均은 一九三一年以來의 新高價를 示하얏는 바 十一日入電 스틸株는 七十二弗四分一로 依然 高價이엇다

## 鍾新空前高價

近來의 株界는 增資狙인만큼輕視할수업는데 鐘新新舊에 增資目標의 買物이 殺到하야 鐘新은 三圓高價를 突破하고 鐘新은 百七十七圓二十錢으로 百七十六圓臺로 現在하야 熱氣가 잇슬뿐아니라最後의 增資의 高價인데 五十錢의 買進이 滿足하야 手中에잇다 以後의 高價에 이르도 百七十五圓은 依然 發起人側의 信託保險會社側의 買氣가 包含되어잇는만큼 實力는 조심되리라한다

## 委員會延期로

### 東新다시買進

取引所制度調查委員會의 大藏省의 擧를 迫한 事態의 進展이 十一日부터 열릴 取引所制度改正調查小委員會는 成案을 得하야 總會에 附議케될 예알것두고 그內容이 過當한 受取、委託者保護가 一어느程度를 指하게될것이지 形勢不安하야 東新은 百二十二圓臺로 買進하얏스나 一 小川商相이 그리 三日間延期되어 다시 無期延期되엇다는 이것이 東新에 買氣再起하야 東京東新이 百二十五圓五十錢에까지 反高되엇스며 當地도 前場에 五圓丁이엇고 大新도 六十七圓臺로 少高이엇는바 依然後場買氣는 不起하얏다

## 後場急騰

後場은 鐘新이 百七十六圓丁에 後場되고 東新도百二十六圓十錢에 後場되엇스며 其他도 堅調이엇다

##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八圓四十九錢에 一丁高로始場後 四十五、六錢에 低迷이고 四十七錢에止場하다

## 損退와利喰物

### 一大混戰演出

白露의 無難을 擔保한 各地市勢는 二百二十日도 또한 無事할것을 豫期하고 日復日低落을거듭하야 阪地는 百五十餘丁當地는 實로 百七十餘丁의 反落을 告하엿다 今日은 卽二百二十日인 三大厄日의 最後一日로서 當地는 快晴、下關은 降雨、大阪은 晴天、東京은 曇天으로 大體의 天氣가 良好하면서 厄日의 不安은 今日로서 一掃하고 말엇스며 日本內地는 無事了한後 青田時代에 入하야 土用三伏을 無事經過하야 實로 理想的 豐作을 豫想하게되엇다 一時는 朝鮮米作 一千五百萬石說이 漸次 本內地米作六千四、五百萬石說이 濃厚하더니 昨今에 入하야는 日本內地米作七千萬石說이 擡頭한다 此의 數字가 事實이라하면 昭和八年度의 豐作을 凌駕할수잇스며 그反面朝鮮의 凶作悲觀은 緩和할수잇게된다 그럼으로 當地市勢는 少毫도 凶作氣分이 無함과如히 阪地보다도 오히려 先驅的低落을加하는 中인데 何如間七千萬石說이 事實化하는때는 一、二百丁의 低落을 足히可期할수잇다고示示如何?

## 市場六感

株……取引所制度調查委員會의 成案을 惟내어 百二十一圓臺로떠러저던東新이 委員會無期延期로다시反撥 大新도八圓臺 東京後引으로 一齊高 ▲거칠하자면 限定이업는일로 日中問題、增稅問題、國策問題 取引所問題等 판이지만 百二十圓臺의 大崩을떠들기보다는 順調히市勢에 조차 買委勢가 宜當할듯 ▲鐘新도 可能할上勢가 잇슬것갓고 日產도 稀有의 活躍이 잇슬듯하다

米……今日은 二百二十日! 此厄日도 無事經過하엿스니 厄日念慮는 이로부터 一掃?▲移秋以來少毫도 災害가 업시今日에 至하엿스니 昨今擡頭하는 七千萬石說도 無理는아닐듯▲그러나 朝鮮米作은 一千五百石內外를 豫想하는모양이니 所謂丙子年이람 그俗言도 度外視할수업슬것▲그러면 每年九百萬石의 日本內地移出을 보이든 朝鮮米는 明年度移出이 減退될것은 事實▲그리고 朝鮮米의 將來가 日本內地米價보다 判斷할수도 또한 事實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 | 當限 | | 先限 |
|---|---|---|---|
| 賣方 | 五〇〇 | 二〇〇 | 一、二〇〇 |
| 買方 | 三〇〇 | 五〇〇 | 一、〇〇〇 |
| | 四〇〇 | 一〇〇 | 二〇〇 |
| | 一〇〇 | 一〇〇 | 二〇〇 |

## 期米

### 續崩後에 底迷

#### 前場亂調

昨後場阪地廿八圓五十一錢에 六十三錢止와共히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五十八錢에 五丁反落을 摸하고 三十六丁突落으로 場하야 三十六錢에 止하얏다 然後阪地五十七錢으로 反落을 얼마나 五十九錢까지 突飛하엿다가 阪地五十七錢으로 反落하야 三十五錢까지 更落하더니 結局阪地六十八錢의 反高外相傳하야 四十八錢에 場을 止하엿다

## 二百卅日平穩

今九月十一日은 二百二十日이데 各地天候가 如左하야 大體平穩이엇다

各地天氣 (午前六時)

| | | | |
|---|---|---|---|
| 中江鎭 曇 | 淸津 晴 | 新義州 晴 | 大邱 曇 |
| 平壤 晴 | 釜山 曇 | 仁川 雨 | 下關 雨 |
| 京城 晴 | 大阪 晴 | 全州 晴 | 東京 曇 |
| 木浦 晴 | 天津 曇 | 群山 雨 | 靑島 晴 |
| 雄基 晴 | 上海 曇 | 城津 晴 | 新京 曇 |
| 元山 晴 | | | |

## 日本內地米作

### 七千萬石說!

朝鮮의 天候는 開花期에들어가기 前부터 繼續不良하야 大凶作을 悲觀하는 그反面에 日本內地는移秧時代에 一時冷害를嫌忌하엿슬뿐으로 無難完了한後 青田時代에 入하야 土用三伏을 無事經過하야 二百二十日等

##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米貨債는 賣込反動으로 六分半七十錢高 五分半五十錢高로 反撥이나 內債는 氣乘薄으로 保合되어 商狀이엇다

▲甲五分利 一〇〇、〇一

▲一回四分 一〇一、〇〇

##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九八 ▲一回四分一〇〇、〇五 ▲二回四分一〇一、二四〇 ▲第三五分一〇一、四〇 ▲佛貨一九七、九五 ▲米貨六分四一、一五〇 ▲滿洲公債一〇〇、三〇

## 今日財界(十一日)

◆米 (限月當)

| | 今日止 | 比前日 |
|---|---|---|
| 仁川期米 先限 | 二八、四四 | 高 一四 |
| 大阪期米 先限 | 二八、四七 | 安 三五 |
| 日本正米 | [illegible] | [illegible] |
| 仁川正米 | [illegible] | [illegible] |
| 正租(仁川)一等 | 一、一〇 | |
| ◆市中金利 一斤價 | 二十五錢 | 不變 |

◆株

| | 今日止 | 比前日 |
|---|---|---|
| 東新 | 一二六、三〇 | 高 一、三〇 |
| 鐘新 | 一七六、三〇 | 高 一、八〇 |
| 日產 | 八一、五〇 | 高 一、〇〇 |

◆商品

| | | |
|---|---|---|
| 大阪綿花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三品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人絹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 고무FAQ | [illegible] | 不變 |

##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商通】好順으로 日本內地新米作況好轉이고 豐作氣分濃化하야 底不知의 氣分이다 好阪氣市勢도 一服觀望의 모양이오 特히 產地正米의 定期過信鮮으로 賣方도 自重하야 民待的態度인바 今後 萬一良好로 推移하면 多少의 民待로 反가잇슬지도 疑問으로 大口의 新賣이잇스리라고 보인다

實方=地場歡迎 合同側 朝鮮乘替 約政

買方=地場新規 地場利喰

## 各地正米

### 京城續落

賣買雙方이 無氣이오 市況이 極히 不振하야 各地低落 辭하고 二十錢續落이엇다

(一)三等 二三、六〇 四等 一二、三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 仁川低落

前日來 需給關係로 市況依然히 不振함으로 期米低落으로 更히 二十錢引落이엇다

(一)三等 三〇、六〇 四等 三〇、三〇 一等白米 一三、四〇

### 釜山弱含

買方은 當用向小口뿐이오 商談不活로期米低落을 보고市勢十錢低唱이엇다

(一)三等 三一、四〇 四等 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七〇

### 大邱氣崩

期米의 低價로 一般氣迷人氣遠厚化하고 取引은 去叔寞함뿐으로 氣配續崩하야 十五錢崩落이엇다

(一)三等 三〇、六五 四等 三〇、三五 一等白米 一三、二〇

### 群山暴落

淸算의 落潮不振이오 特히 當限의 低落을 移하야 人氣極度로 脅威되고 氣配一擧 四十錢 急落을 演하엿다

(一)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〇、八〇 一等白米 一四、〇〇

### 木浦下落

期米低로 人氣極히 軟弱이나마 不作豫想으로 持意頑强하고 各地低에 不添하야 氣配下游이엇다

(一)三等 三一、六〇 四等 三一、三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 金融 十一日

◆海外經濟◆

| | | |
|---|---|---|
| 倫敦金塊 | [illegible] | [illegible] |
| 紐育銀塊 | [illegible] | [illegible] |
| 倫敦銀塊 | [illegible] | [illegible] |
| 米棉 | [illegible] | [illegible] |
| 印棉 | [illegible] | [illegible] |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十一日 [illegible]

## 株式 十一日

◆朝取短期◆

| | 前寄 | 前引 | 高價 | 低價 |
|---|---|---|---|---|
| 朝取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鐘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東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日產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日魯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帝人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 商品 十一日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綿實油冲價◆ [illegible]

◆綿粕冲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 期米 十一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正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場◆(單位圓) [illegible]

## 商品 十一日

◆大阪棉米◆ [illegible]

◆大阪棉絲◆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外國期米◆ [illegible]


(米) 東益商店 (株) 金益證券 光皿

(株式) 仁川米豆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